

## 내포신도시 자랑거리 발굴과 실천방안

임준홍 · 권영현 · 제수진 외

충남연구원  
jhim@cni.re.kr

이 연구는 내포신도시 건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신도시 거주민은 물론 방문객에게 자랑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실천을 위한 기본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CONTENTS

제1장 콘텐츠 발굴 및 의식조사

제2장 콘텐츠별 기본적 실천방안

제3장 결론 및 정책제언

### 요약





- 내포신도시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내포의 정체성·특화 등이 논의되었지만, 신도시 거주민과 방문객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이루어짐
- 내포신도시 자체가 자랑거리이고, 자랑거리는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와 시민의 참여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본 연구는 현재 내포신도시를 잘 아는 사람들이 제안한 자랑거리를 바탕으로 전문가 설문조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압축하고, 새롭게 발굴된 자랑거리는 추가하는 방식으로 발굴함
- 연구에서 발굴된 자랑거리는 현재 단계에서 발굴된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발굴과 도민 생각을 담아 발전시켜 나가고,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꾸준히 발굴·재조정되어야 할 것임
- 특히, 내포신도시의 입지와 주변의 산과 하천, 내부의 수변과 녹지 등 자연·생태환경 자체가 자랑거리이므로, 향후 자랑거리의 구체적 실천과 추가 발굴에서 이 점을 보다 활용·연계하는 것이 요구됨
- 내포신도시 자랑거리 발굴과 실천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신도시 거주민의 참여와 도민의 관심이 요구되며, 이를 체계화 할 수 있는 조직의 구성, 예산 등의 지원도 요구됨

# 제1장 콘텐츠 발굴 및 의식조사






## 1. 발굴 콘텐츠 개요

- 콘텐츠 발굴은 내포신도시의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충청남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부 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발굴됨


번호	사업명	특징	비고 (조성완료시기)
1 [1]* 설문조사 순위	<b>홍예공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예공원의 홍과 예는 한자어 무지개 의미와 홍성 예산의 지역이미지를 중의적으로 표현,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공원을 의미하며, 앞으로 무지개 상징 조형물(조명) 등 설치</li> <li>* 우주의 중심인 자미원에서 봉황이 용봉산, 덕숭산, 가야산으로 비약하는 천자연적이고 공간순을 형식의 조성으로 내포의 비상을 염원.</li> <li>○ 총 면적 325천㎡, 2개의 호수와 자작나무길, 소나무길, 편백길, 느티나무길 등 상록관목을 주재료로 사계절 푸르른 형상이 유지되며, 다목적 운동장 및 공연장등이 갖추어졌고 호수와 어우러진 야간 경관 조명 등 일품</li> </ul>	조성완료 (2015년)
2 [2]	<b>충남도청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청사는 본관·의회·별관·문예회관 4개의 동이 하늘로 웅비하는 웅장한 언덕 상징(한성(별관), 웅진(의회), 사비(문예회관)와 現 충남(본관)], 백제의 부드러운 곡선을 디자인 모티브로 계획</li> <li>○ 형태는 충남도의 나지막한 산들과 넓고 푸른 평야, 그 사이를 흐르는 금강을 모티브로 금강유역에 있는 산들이 모여 하나의 산봉리를 형상화</li> <li>* 2013 한국건축문화 대상(우수상) 수상(국토교통부 등 주관)</li> <li>○ 기류흐름, 방위별 일조 고려 건물 배치 등 친환경 최우수 등급 및 관공서 최초 에너지효율 1등급 건축물</li> </ul>	조성완료 (2013년)
3 [14]	<b>신도시 전역의 생활 레저형 자전거 등 도로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5대 하천, 공원, 행정타운, 문화·예술 공간 등 도심 곳곳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망이 28개 노선 70.1km가 구축됨.</li> <li>○ 라이더 및 주민들을 위한 생활·레저형 자전거 도로망 구축으로 에코 신도시 이미지 제고</li> </ul>	조성중 (2020년 준공)





번호	사업명	특징	비고 (조성완료시기)
		○ 하천과 도시공원 등으로 도심전역으로 이어지는 힐링 보행자 도로망	
4 [3]	<p>홍예공원 안의 충남 문화시설 단지 (도서관·예술의전당·미술관)</p> 	<p>○ 충남 도서관, 예술의 전당, 미술(박물)관 등 3개 문화시설이 집단화되어 도시와 자연문화가 교감하며 시민의 삶을 열어주는 문화 열개</p> <p>* 현재는 도서관만 준공된 상태로 도서관은 31천㎡부지에 연면적 12천㎡ (지하1층/지상4층) 충남의 대표 도서관이면서 공공도서관 역할 수행</p> <p>○ 홍예공원 및 문화시설과 연계된 소통과 만남의 장소, 내포신도시의 아이콘이며, 최첨단 업무공간과 도민화합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p>	<p>도서관 조성 완료(2018년)</p> <p>문예의 전당, 미술(박물)관 향후 건립</p>
5 [6]	<p>안전하고 깨끗한 5무 도시</p>  <p>〈공동구〉</p>	<p>○ 내포신도시에는 경관 등을 해치는 5가지 시설이 없는 아름다운 도시(5무 : 전신주, 육교, 담장, 쓰레기, 입간판)</p> <p>○ 개성 넘치고 안전한 건축물 및 시설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도시 내 모든 건축물은 내진설계 적용, 피로터 구조가 없어 안전</li> <li>- 교통, 안전, 환경, 교육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융합한 스마트 도시</li> <li>- 모든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통하여 동일한 색채, 구조 등이 없는 특징</li> </ul> <p>○ 장애인·노약자 등이 장애(차이)를 느끼지 않고 살아 갈수 있는 무장애 도시 조성</p>	조성 중 (2020년 준공)
6 [4]	<p>누구나 이용 편리한 생활 체육 시설</p> 	<p>○ 신도시 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다양한 생활체육 시설 완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체육시설(야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등 12종 30개 시설) : 설치 완료</li> <li>- 골프장(9홀) : 조성 중</li> <li>- 종합스포츠센터(실내체육관, 수영장, 연구, 문화시설 등) : 조성 중</li> </ul> <p>○ 인근의 용봉산, 수암산 등반, 온천 힐링과 연계한 동호인 및 생활체육인 여가활동 최적지</p>	조성 중 (2020년 준공)
7 [7]	<p>협업 중간지원체계 내포혁신플랫폼 구축</p>	<p>○ 도민이 같은 장소에서 자원공유, 회의실, 교육장 등 시설 공동사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체계(협업사업 발굴 등)를 위한 플랫폼 구축</p> <p>○ 도내에 설치된 자원봉사,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사회복지</p>	조성예정 (2018년 이후)



번호	사업명	특징	비고 (조성완료시기)
		등 79개 센터 중 시너지 효과가 있는 주체들의 상호 교류·협업 할 수 있는 통합 거점 공간 조성	
8 [12]	산학연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 도시지역내 공해가 없는 자동차 및 수소 에너지, IT·BT 등 중심 첨단업종의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 조성 면적 1,260천㎡ ○ 산업단지내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연계·협력 시스템을 구축 하는 클러스터 구축	조성 중 (2018년 이후)
9 [15]	환황해권 중심의 복합행정도시	○ 충남 도 단위기관 128개 기관 중 93기관 이전완료, 35개 기관 이주 준비 중 ○ 중앙행정기관 4개 기관 입주 확정 설계 중 - 그리고 환 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위해 수도권 소재 국가 공공기관 중 충남 지역산업(중소기업, 석유, 해양, 환경 등)과 연관되는 기관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 ※ '16년 기준 수도권 15개 기관이 이전 가능(충남도 자체조사)	조성예정 (2018년 이후)
10 [10]	도민화합과 어울림의 15개 시군상징 테마광장  	○ 내포신도시는 도청소재지로 도민화합 및 어울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도로 교차로 등에 15개 시군을 상징하는 특화광장 조성 ○ 시군별 시군의 꽃, 나무, 문화, 역사, 관광명소를 상징할 수 있는 수목과 상징물을 설치하여 관광부문과 연계	조성 중 (2020년 준공) ※5개소완료 (공주,논산,태안,홍성,예산)
11 [11]	파워센터 부지 내 랜드마크 빌딩 	○ 내포신도시 중심지역 중 가장 고층을 건축할 수 있는 파워센터 2개의 부지에 층, 효를 상징하는 인지성이 높은 수직적 랜드마크 빌딩 건축(쌍둥이 빌딩) ○ 세계적인 건축설계 디자이너에 의한 설계 공모 등 내포신도시 내 대표적 랜드마크 건축물 건립	조성예정 (2020년 이후)
12 [8]	저녁 삶이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거리	○ 내포 중심상가 및 공원부지 주변 빌딩에 미디어파사드 조성 및 젊음 광장 조성	조성예정 (2018년 이후)



번호	사업명	특징	비고 (조성완료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심상가 특화 가로 조성(예, 홍대거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가와 공공녹지, 조형물이 조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li> </ul> </li> <li>○ 공원 및 중심가로변에 트리아트포토존 등 상징 조형물 설치</li> <li>○ 충남 15개 시군 향토적인 맛집 거리 조성</li> </ul>	
13 [13]	<p>경쟁력을 갖춘 질 높은 교육환경 에듀 타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조성시 어린이공원 옆에 건축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인성학습원 20천㎡ 등 조성(RB 5블럭)</li> </ul> </li> <li>○ 서해안의 명문 홍성고등학교 등 고등학교 2, 중학교 3, 초등학교 6, 유치원 5개소 등 16개 학교가 설치되어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통학토록 500m 이내 학교가 위치</li> <li>○ 충남대학교 등 첨단산단과 연계한 산학연구기반 조성으로 지역인재 양성은 물론 평생교육 인프라구축 도시</li> </ul>	조성 중 (2013부터)
14 [5]	<p>용봉산 자락 백제 한옥마을과 아트빌리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봉산 자락에 위치하고 인근 덕산온천 등과 연계한 백제의 전통 한옥마을 (45천㎡부지, 60~70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과 체험, 체류형 전통상가, 한옥 체험관(게스트하우스), 전통한옥 등 백제 전통문화를 담은 특화 단지 조성</li> </ul> </li> <li>○ 또한, 용봉산과 내포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유럽풍 등의 단독주택 아트빌리지 조성(45개 동)</li> </ul>	조성 중 (2020년 준공)
15 [16]	<p>용봉산(수암산) 배경 보훈공원과 충혼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봉산(수암산) 정기와 홍예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보훈공원 내 충혼탑은 이 땅에 모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이 현재의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이라는 의미를 담은 상징조형물</li> <li>○ 조형물은 1,000여개의 정사각형 블록으로 10m높이의 거대한 토기 모양으로 각 블록에는 청동검 형태의 풍경을 매달아 애국정신의 연속성을 표현</li> </ul>	조성완료 (2018년)
16 [17]	<p>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심지 교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도시 간선도로변에 설치중인 27개 전체 교량에 대하여 공공디자인을 도입 각기 다른 모양과 형태의 상징조형물 설치</li> <li>○ 지역 여건 및 가로별 특성에 부합되게 교량별 상징조형물을 가미한 특색 있고 아름다운 교량 설치</li> </ul>	조성 중 (2013년부터)

번호	사업명	특징	비고 (조성완료시기)
			
17 [18]	<p>도청대로 및 충남대로 소나무 가로수</p> 	<p>○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상징수 중 한국 전통 소나무를 선정하여 도청대로, 충남대로 등의 중앙분리대에 장송 소나무 가로수를 특색 있게 식재</p> <p>○ 신도시 중심가로에 장송 식재를 통한 웅장하고 정연된 사계절 푸르른 가로수 유지</p>	조성완료 (2018년)
18 [9]	<p>내포신도시 게이트 야간경관 조명</p> 	<p>○ 가로별 특성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구조물이나 가로수를 활용하여 진입부의 야간경관 연출</p> <p>○ 가로 특성을 고려한 게이트 등의 상징물 조성</p>	
19 [신규추개]	<p>산·바다·강이 어우러진 ‘자연경관도시’</p> 	<p>○ 내포신도 내의 자연생태환경은 물론 산·바다·강이 연계된 우수한 광역생태네트워크 자원 보유</p> <p>○ 천혜의 자연환경(용봉산, 수암산, 가야산, 덕숭산 등)과 휴양시설(덕산온천, 치유의 숲길, 홍예공원 등)을 보유한 심신건강 증진 및 치유의 풍수 명당도시</p>	

## 2. 콘텐츠 설문조사 결과

- 1차적으로 발굴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공무원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사업명	선택합계	비중	충남연 조사 순위	공무원 조사 순위	종합 순위
홍예공원	34	10.625	2	1	1
충남도청사	48	15	1	4	2
충남문화시설단지	27	8.4375	3	2	3
생활체육시설	18	5.625	8	3	4
한옥마을과 아트빌리지	22	6.875	6	7	5
5무도시	24	7.5	4	11	6
내포혁신플랫폼	24	7.5	5	10	7
문화예술거리	21	6.5625	7	8	8
게이트야간경관	12	3.75	13	5	9
15개시군 상징테마광장	18	5.625	9	12	10
파워센터랜드마크빌딩	7	2.1875	15	6	11
첨단산업단지	12	3.75	11	14	12
에듀타운	12	3.75	12	13	13
자건거도로망	6	1.875	17	9	14
환황해권복합행정도시	16	5	10	17	15
용봉산 배경 보훈공원	7	2.1875	16	16	16
도심지 교량	8	2.5	14	18	17
소나무 가로수	4	1.25	18	15	18



## 제2장 콘텐츠별 기본적 실천방안

### 1. 홍예공원

#### 1) 현황, 여건, 해결과제

##### ○ 홍예공원 현황

- (조성 현황) 홍예공원은 총 면적 325,000㎡로 조성된 한자어 무지개 의미와 홍성군·예산군의 지역이 미지가 반영된 도시공원으로 수(水)공간, 운동기구, 운동장, 광장, 산책로 등으로 조성
- (인식 현황) 최근 내포신도시 자랑거리 설문조사 결과 홍예공원이 1순위로 조사되어 주민들이 내포신 도시를 대표하는 장소 및 이미지로 홍예공원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
  - 충남도청 내포자랑거리도출 설문조사 순위 제공자료 참조
- (이용 현황) 홍예공원은 지역 주민의 도시 생활공간으로의 이용 외에도 지역 계절 축제, 지역 농산물·특산물 홍보, 공연 등의 장소로 이용
  - 2018.08 청소년 버스킹 흥흥흥 (홍성YMCA)
  - 2018.07. 지역특화프로그램 한여름 물축제 (문화가 있는 날 예산군 축제추진위원회)
  - 2018.07. 홍성큐팜 농산물 마케팅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 ○ 홍예공원의 입지, 접근 및 이용, 운영관리 여건 검토

- (입지 여건) 홍예공원은 내포신도시개발계획에서 특성화계획을 실현하는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타운, 공원녹지(애향공원, 소규모 근린공원), 주요 시설과 인접·연결되는 지점에 위치
- (접근 및 이용여건) 지역 주민들은 공원 이용 시 도보 접근 환경이 안전하지 못함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으며 공원 이용 시 대중교통이나 도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
  - 충남연구원 주관 현장답사 (2018.07), 개인 현장답사 (2018.08)
- (운영관리 여건) 공원 내 시설 정비, 수목의 주기적 관리, 휴게 공간 부족 등 공원 이용 시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충남 주민사랑방 게시판 (제안합니다), 홍예공원 이용후기 참조 (네이버 카페-내포천사, 홍성맘들모여요)
  - 홍예공원 관련 기사 검색 결과
    - 2017.04. 시설 전반 관리 및 민원 처리 부족 (<http://www.hj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
    - 2016.09. 공원수질 및 수목관리 미흡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8982>)
    - 2016.05. 편의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부족 ([http://www.daejoniilbo.com/news/newsitem.asp?pk\\_no=1214348&r\\_key=431532463](http://www.daejoniilbo.com/news/newsitem.asp?pk_no=1214348&r_key=431532463))

##### ○ 홍예공원의 해결해야 할 과제

-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제고) 공원 이용 시 체감할 수 있는 이동수단 개선, 정기적인 시설물 및 수목 관리, 휴게 공간 개선 등 소규모 단위의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

- (운영관리 체계 구축) 현재 공원관리는 충남도 신도시건설과에서 홍성군과 예산군으로 이관된 상태이며 주민, 방문자 등 공원 이용자와 관리주체 간 소통창구가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응체제 마련이 필요
- (개발단위별 활성화 전략 수립) 권역, 도시, 근린단위에서의 오픈스페이스 활성화 계획 수립

## 2) 개선방향

### ○ [개선방향] 홍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과 도시 공원녹지 활성화 전략 마련

- (단기적 사업) 운영관리 체계 구축은 공원관리 현황, 행정처리 및 문제, 의사결정 구조 등 실태를 점검하고 운영관리 현안과 공원 이용자 민원 내용과 기존 처리결과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업무수행 체계를 마련하는 것
- (중장기 사업) 활성화 전략은 기 수립된 개발계획에서 산재된 공원녹지 관련 사항을 종합하고 도시 특성화 전략과 연계한 공원녹지 정책 수립과 입지적 장점을 바탕으로 공원 운영프로그램 및 내포 신도시의 명소화 사업에서 주요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함

### ○ [개선방향 실천을 위한 단기사업] 홍예공원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운영관리 체계 구축

- (사업배경) 홍예공원은 내포신도시 자랑거리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업무담당, 처리 절차, 의사결정 구조가 미흡한 상황. 홍예공원은 도시 명소로 추진되기 이전에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과 만족도 향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공원 운영관리 체계) 현재 업무담당 부서의 업무와 처리 절차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예산 및 행정(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운영관리 업무(일원화 주체), 시설관리 실무(위탁) 등 공원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관련 주체별 업무분장과 지원체계를** 마련
- (모니터링 체계) 통합된(일원화된) 운영관리 업무에서 공원 이용자의 만족도, 불편사항 등 개선이나 운영프로그램 기획 시 참여를 위한 플랫폼, 수립된 의견의 반영결과 공유(미반영 사유 포함)와 같은 **별도의 모니터링을 위한 종합 플랫폼** 마련

※ 공원녹지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방법 예시

- ‘How Can I Improve My Park’는 New Yorkers for Parks 기관과 Urban Pedagogy 센터 가 협력하여 개발한 도시 내 근린공원 개선을 위한 공원이용자 대상 안내서
- 이 안내서는 지역 주민(공원 주이용자)에게 공원개선에 참여 시 ①시설물 관리, 직원, 청소 등 안전과 ②시설물 변경과 같은 예산지원 안전에 따른 접수, 협의과정, 처리 절차, 기타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그림] 공원녹지 개선을 위한 방법

출처: New Yorkers for Parks (2016) How Can I Improve My Park, p.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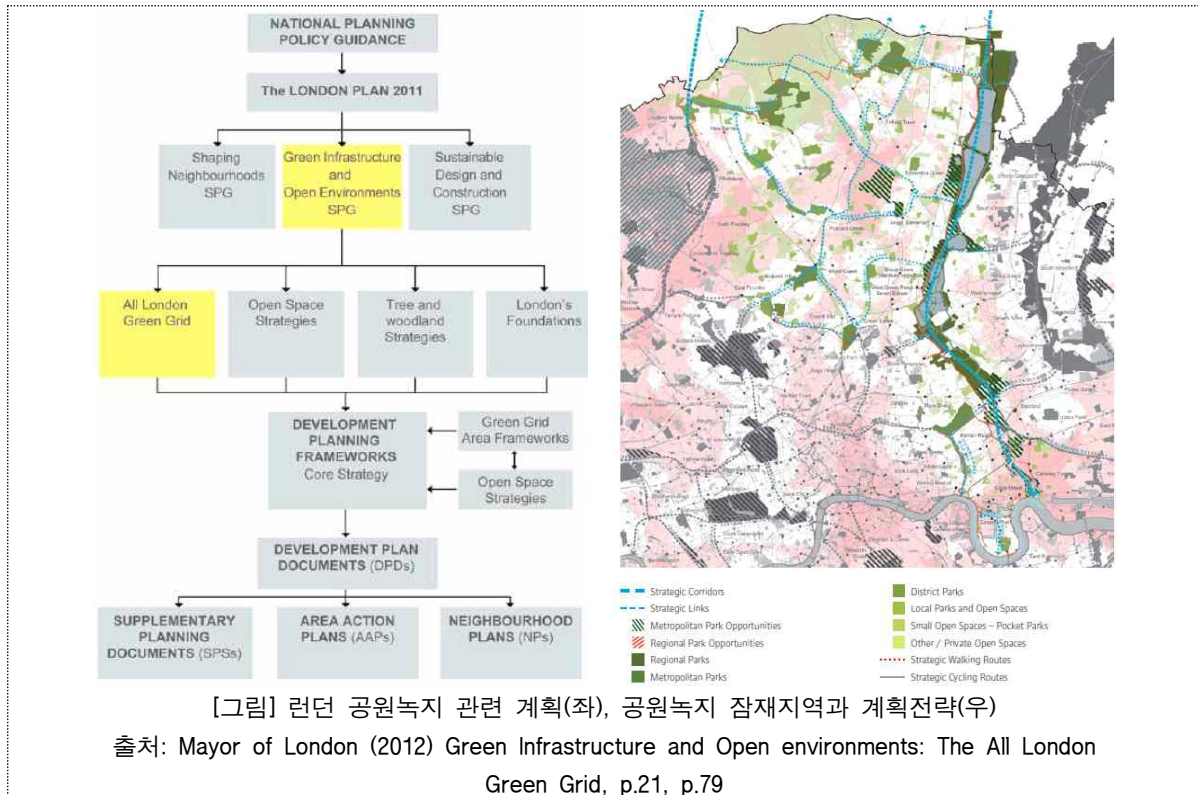
○ [개선방향 실천을 위한 중장기 사업] 권역, 도시, 근린단위에서의 **홍예공원 활성화 전략 수립**

- (사업배경) 홍예공원은 내포신도시에서 지리적, 공간적 장점을 지니고 있어 **내포신도시의 자량거리·명소화 사업계획 시 주요 지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홍예공원은 향후에도 녹지율 50%의 내포신도시를 대표하는 오픈스페이스(공원녹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측됨. 이러한 배경 하에 충남권역, 내포신도시, 근린단위 문화클러스터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공원녹지 정책 수립) 내포신도시 특성화계획 중 ‘도시가 숲이 되는 Green City’ 는 다른 특성화계획 및 세부계획의 바탕이 되는 사항으로 내포신도시 오픈스페이스(공원녹지, 광장)에 중점을 둔 이용자, 접근성, 건강, 안전, 환경, 관리 등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

※ 영국 런던의 공원녹지 정책과 도시정책 간 연관성 예시

- 런던 Green Infrastructure, Green Grid 계획은 지자체 정책에서 중요한 위상을 지니며(그림 ■ 표시) 공원녹지는 도시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자연적 요소뿐만 아니라 생활, 음식, 기타 지역 조건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공원 운영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 대상 주중·주말 프로그램(참여행사, 공연, 영화, 프리마켓), 계절별 프로그램(봄꽃축제, 물놀이, 가을운동회, 눈꽃축제), 충남지역 축제(홍성, 예산, 서천, 논산 등)와 연계하여 공원 운영 프로그램으로 정례화 및 홍보 방안 마련
- (문화클러스터 및 신도시투어 거점 개발) 도시 여행코스는 충남권역, 내포신도시 단일 방문 등 방문자, 목적, 일정을 고려하여 **홍예공원을 출발 또는 주요 지점으로 코스별 주제**(신도시관광, 자연, 문화, 역사 등), 소요시간 및 거리, 이동방법 제시

### 3) 정책제안

#### ○ [주체별 역할] 홍예공원 조성 이후부터 현재까지 업무현황 분석과 운영관리 협의체 마련

- (현행 업무체계 파악)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담당부서, 홍예공원 운영업체 간 업무현황, 담당인력, 연도별 예산을 파악하고 쟁점사항 도출
- (실무자 협의체 구성) 주체별 역할 설정을 위한 실무자 협의체 구성, 협력체계 마련까지 운영

#### ○ [고려사항] 홍예공원 포함 오픈스페이스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제안

- (사업기획) 홍성군·예산군 협의체는 기간별 추진사업 로드맵과 예산계획 작성



## 2. 충남도청

### 1) 현황, 여건, 해결과제

#### ○ 충남도청 현황

- (조성 현황) 충남도청은 지역 자연조건을 모티브로 한 ‘The Great Hill’ 개념으로 설계되었으며 본관, 의회, 별관, 문예회관의 기능별로 구분된 4개동으로 조성
- (인식 현황) 최근 내포신도시 자량거리 설문조사 결과 충남도청사가 2순위로 조사되었음. 이 조사에서 공공건축물이 상위권을 차지함
  - 충남도청 내포자량거리도출 설문조사 순위 제공자료 참조
- (이용 현황) 현재 본청과 의회는 업무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별관은 강의실, 회의실, 복지센터, 평생교육원 등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 시설로 이용, 문예회관(공연장)은 충남문화재단 주관으로 월1회 공연기획이 이루어져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음

#### ○ 충남도청 여건

- (입지 여건) 내포신도시 중앙의 행정타운 지역에 위치한 충남도청은 홍예공원, 도립도서관, 공공업무시설, 목리천 및 신경천 공원과 인접. 현재 청사 서측에 고속시외버스정류소가 위치함
- (접근 및 이용여건) 충남도청은 내포신도시 전 지역에서 접근성이 용이함. 다만, 청사대지 내에서 보행도로와 주차장에서 건물로 진입 시, 건물에서 건물로의 이동 시 방향성 인지가 어려움.
  - 충남연구원 주관 현장답사 (2018.07), 개인 현장답사 (2018.08)
- (운영관리 여건) 종합안내소는 위치 상 도청뿐만 아니라 행정타운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관제센터, 방문센터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오픈스페이스) 건물 사이에는 개방된, 다양한 규모의 오픈스페이스(광장, 연못, 산책로 등)가 조성되어 있으나 현재 빈 공간으로만 있음

#### ○ 충남도청의 해결해야 할 과제

- (행정타운 도시이미지 형성) 충남도청은 내포신도시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도시경관, 공공건축,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의미 있는 자량거리로 자리매김함. 추후 진행되는 정부지방합동청사 등 공공건축사업에서는 도청, 경찰청, 교육청과의 조화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
- (공공건축으로서의 가치 제고) 충남도청은 역사, 신청사 조성과정, 디자인 가치, 사용현황 등 좋은 공공건축 사례로 홍보할 필요
- (청사 운영관리 내실화) 청사는 시설물 관리계획을 통해 단순 시설물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조직, 인력, 업무여건 변동에 대응하는 시설 및 공간 활용이 수반되어야 함. 특히, 비정형 건물로 인해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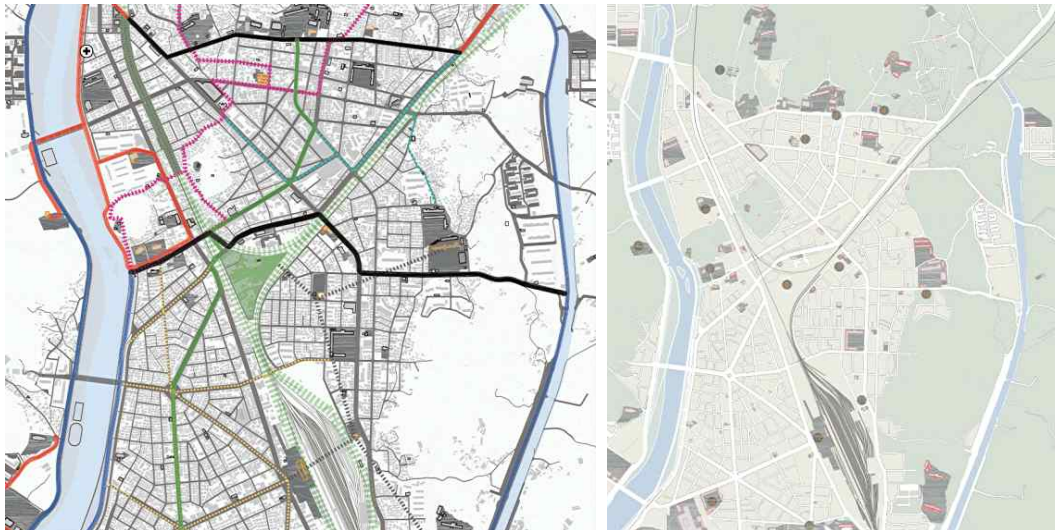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2017) 우리가 함께 만드는 공공도서관, p.26, p.31

○ [개선방향 실천을 위한 중장기사업] 내포신도시 공공건축 관리를 위한 통합마스터플랜 마련

- (사업배경) 내포신도시는 2020년까지 3단계 정착단계로 설정하여 계획인구를 10만으로 설정하였으나 현재 2018년 기준 목표인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향후 정주인구 예측과 시설수요 파악이 미흡한 상황에서 내포신도시 자랑거리는 홍예공원과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
- (공공건축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홍예공원부터 시작되는 공공디자인 구역, 가로경관 중점관리 구역은 충남도청과 연결되며 이 구간은 여러 전략계획이 적용됨. 향후 내포신도시 정착단계에서 인구, 가구특성, 시설수요, 이전기관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간, 시설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

※ 지방중소도시 공공건축·공공공간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사례(영주시)

- 영주시는 공공건축·공공공간 통합마스터플랜 수립(2009), 시장직속 디자인관리단 조직 신설(2010)을 통해 공공건축, 공공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 비전 설정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통합계획을 수립



[그림] 영주시 공공건축 통합마스터플랜

출처: 조준배 외(2008) 영주시 공공건축 통합 계획, p.58, p.62

- (행정타운 통합이미지 제시) 국내외 행정타운 도시이미지를 만든 사례를 조사하여 도시특성, 이미지 전략, 이미지 효과, 현황을 분석. 내포신도시의 행정타운 통합이미지는 신도시 개발조건을 바탕으로 충남도청을 구심점으로 한 실천방안 제시

### 3) 정책제안

○ [기본방향] 충남도청은 건축물 가치에 기반을 둔 내포신도시 자랑거리로 제안

- (접근) 신도시건설과는 내포신도시 자랑거리 발굴의 대상으로 충남도청을 접근하는 것보다 충남도청의 공공건축 가치(역사, 이전, 신청사 설계의도), 지역 내 공공건축 기능(도청소재지,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시설 및 오픈스페이스 등), 행정타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

- (정책) 신도시건설과는 양질의 공공건축 조성과 관리를 위해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지침 적용현황, 해당 부서의 심의회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여 쟁점사항 도출, 충남도청 홍보 및 공공건축 마스터플랜 수립, 마스터플랜 기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고려사항] 충청남도 권역단위에서는 지역계획 차원에서의 도청소재지 입지, 내포신도시에서는 행정타운 중심의 공공건축물로 개발단위별 제안 내용에 차이가 있음

### 3. 충남문화시설단지

#### 1) 현황 및 여건, 해결과제

- [현황] 충남 문화시설 단지는 홍예공원 내의 동쪽에 부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6차선의 도청대로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충남도청이 위치
- [여건] 현재 대지 내에는 내포신도시 홍보관이 들어서 신도시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건물로 철거 예정이며 또한 뒤편으로 홍예공원과 수암산 용봉사가 자리 잡고 있어 수려한 경관 보유
- [여건] 단지는 충남도서관, 예술의 전당, 미술관 등 3개의 문화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는 충남 도서관이 2018년 완공되어 전면도로의 좌측에 들어서 있으며 나머지 2개의 시설은 향후 건립될 전망
- [여건] 문화시설 단지는 내포신도시의 머리 부분에 자리 잡고 있어 위치적으로 큰 중요성과 잠재력 보유
- [해결해야 할 과제]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중요 시설에 대한 배치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도서관과 차후에 건립될 두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 2) 개선방향

- 이렇게 다수의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배치되는 방식을 클러스터 형이라 하며 이렇게 모여 있음으로써 각 시설 간 시너지 효과가 커지게 되는 장점을 가지며 한 번의 방문으로 여러 체험이 가능
- 이러한 예로 고양의 아람누리를 들 수 있는데, 고양아람누리는 장르별로 특성화하여 건설한 전문공연예술센터로서 오페라극장 등 3개의 공연장과 아람미술관, 아람누리도서관, 그리고 문화예술 강의 시설과 카페 및 레스토랑 등의 편의시설로 구성
- 이러한 여러 시설은 중심의 광장을 둘러싸고 배치되어 있는데 이 광장은 많은 방문객들이 한 번에 몰릴 경우 분산시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사진에서와 같이 장터나 문화행사 등을 수용하여 많은 시민에게 행사를 체험하고 모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외부공간으로서 역할 수행





- 용인시청사의 경우도 행정단지로서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 의회,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등이 하나의 행정타운 구축
- 이곳의 중앙 광장도 단순히 비어 있는 큰 공간이 아니라 공연이나 이벤트 등의 문화행사가 이루어져 지역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어 큰 활력을 불어 넣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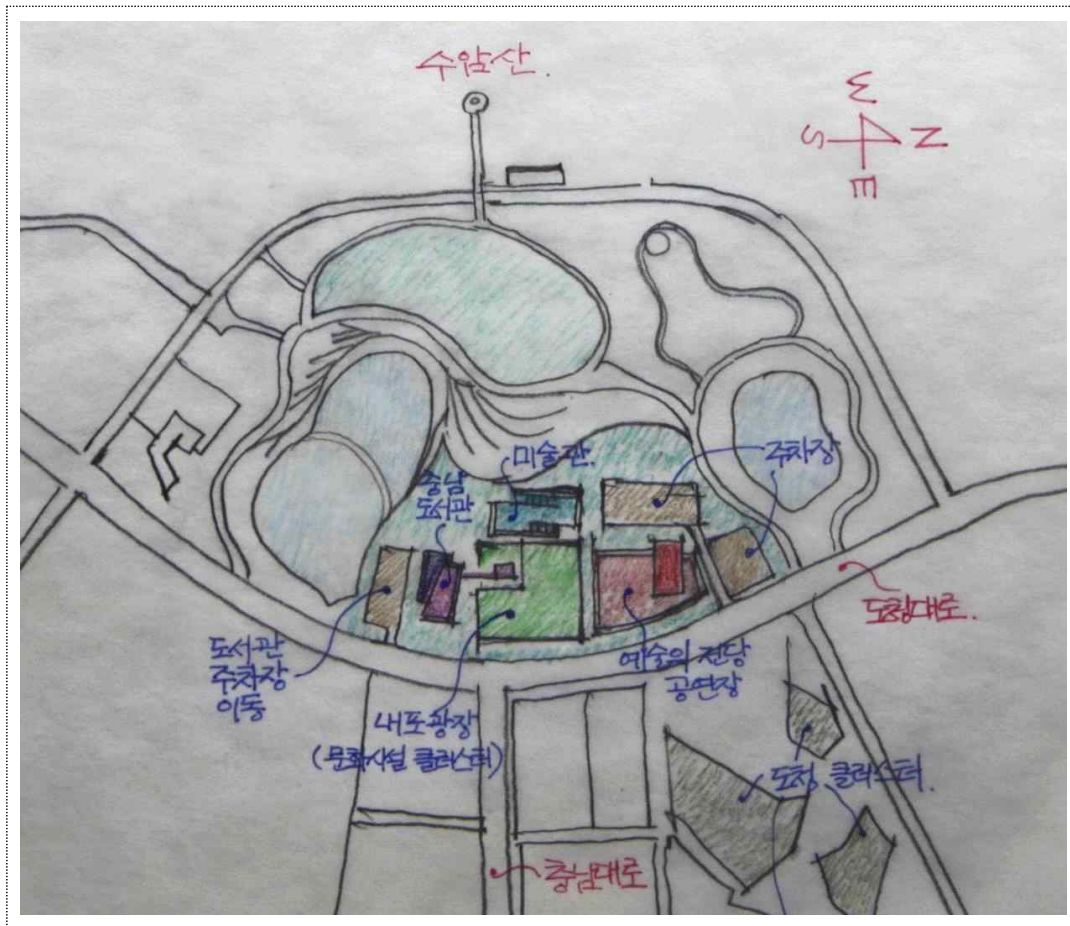


- 한편 내포신도시의 경우 이렇게 주민이 함께 모여서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며 충남문화단지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함
- 앞서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남문화단지는 부채꼴 방사형 평면인 내포신도시의 중심부분에 위치하여 신도시의 모든 부분이 모이는 시점이자 종점이므로 주민이 모이는 중심공간으로 기능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
- 현재는 충남도서관 하나만이 건립되어 있는데 수암산을 바라보고 남북 방향으로 긴 전체 대지 중 남쪽(그림에서 왼쪽)에 배치되었는데 전면도로인 충남대로에서 볼 때 좌측면이 보이며 안쪽으로 들어가서 동향으로 길게 자리 잡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 건립될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과 함께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어 중앙 광장을 갖도록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 판단
- 이에 따라 아래의 배치도(예시)와 같이 대지가 남북 방향으로 길게 되어 있어 서쪽 즉 수암산 쪽으로 확장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중 비교적 규모가 작은 미술관을 위치시키고 예술의



전당을 북쪽(그림에서 오른쪽)에 위치시키고 중앙에 광장을 두어 3개의 문화 시설을 연계시켜 클러스터화 하는 것을 제안

- 이 중앙 광장은 내포 광장이라 명명하고 내포 신도시 주민이 문화적인 혜택을 향유하며 모여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광장은 내포 신도시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충남대로의 긴 직선축의 종점이 되어 시각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며 이 광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 시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3) 정책제안

- 시민과 충청남도 두 주체 모두 충남문화시설단지가 지리적으로 내포신도시의 중심이고 홍예공원의 내부에 그 대지가 있기 때문에 내포신도시의 전체 도시계획에서 화룡점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선행되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
- 이러한 중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충청남도의 의지이며 이 의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구용역을 거쳐 적절한 시설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충남문화시설단지 추진위원회를 두어 이를 검증한 후에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을 광장과 함께 묶어 현상설계를 거쳐 통일감 있으면서

도 개성 있는 좋은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

- 또한 이렇게 원활한 절차를 거쳐 충남문화시설단지가 건립된 후에도 이 공간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 즉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건물과 외부공간에 시민들을 초대하고 일회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로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일상적으로 사랑받고 이용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피 나가야 할 것이며 이렇게 조성되는 충남문화시설단지는 기존의 자연 요소인 홍예공간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 두 공간이 더욱 강화되어 명소로서 인식이 가능
- 진정한 명소는 인위적으로 외부 방문객을 끌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곳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사랑 받아온 장소가 자연스럽게 외부인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게 되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

## 4. 생활체육시설

### 1) 현황 및 여건, 해결과제

#### ○ [현황]

- 신도시 전체 체육시설 중 신리체육공원 부지에 해당되는 생활체육시설은 현재 설치 완료 (야구장 1면, 테니스장 3면, 풋살장 2면 등 12종 30개 시설, 주차장)
- 메인 시설인 야구장의 경우 고교 야구부(홍성 광천고 등) 및 사회인 동호회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제19회 문체부장관기 생활체육 야구대회가 내포구장에서 공동 개최

#### ○ [여건]

- 인근 내포초, 중, 고등학교에서 500m거리에 있어 주변을 따라 보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용봉산이나 수암산 등반, 온천을 경유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차량접근성 역시 우수

#### ○ [해결해야 할 과제]

- 야구장의 경우 최신시설임을 감안한다면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한 기초시설 보완이 좀 더 필요해 보이며 이용자들의 부상과 직결된 문제인 바닥면과 대기 선수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더그아웃의 환경이 우선적인 고려대상으로 판단



- 또한 정식 경기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 외에 산책과 놀이, 자유로운 운동을 위해 신리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놀이시설 확충이 매우 절실함. 공원의 기본시설로서 화장실과 음수대, 천변도로 쪽 자전거거치대 등이 필요

## 2) 개선방향

### ○ [개선방향] 경기장 및 주변편의시설 보완, 일반 시민들을 위한 놀이/편의시설 확충

- 정규 규격을 갖춘 야구장이므로 경기장 전면에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쾌적한 환경의 대기실, 화장실, 야간조명 등을 갖추게 된다면 사회인들은 물론 아마추어 야구팀들도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음
- 수요에 비해 늘 부족한 야구장의 속성과, 지역 거주자들의 쉬운 접근을 표방하는 내포야구장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현재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구장이 되기 위해 경기장 스펙의 향상과 편의시설 보완을 제안함
- 경기 참여자들이 아닌 일반시민들이 운동과 산책, 놀이를 위해 방문했을 때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을 확충하는 작업이 필요함.
- 특히 어린이와 성인들을 위한 다양한 실내외 시설들을 경기장 주변공간에 대한 효율적 토지이용을 통해 보완, 배치할 필요가 있음



### ○ [실천사업 1] 야구장 시설에 대한 단계적 투자

- 보다 많은 방문자들에게 이용되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 경기장 스펙과 편의시설 보완을 단계적으로 제시함
- ① 더그아웃의 햇빛 차단기능 보완 : 여름스포츠인 야구의 속성상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보완할 수 있는 수목의 식재나 컨테이너 대기석으로 교체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② 탈의실/기록실/대기실/의무실 등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간이 실내공간 마련
- ③ 인조잔디포장구간 외야 확대 : 경기장 먼지발생 완화, 부상확률 감소
- ④ 야간조명 설치 : 여름 밤 시간대의 활용에 결정적인 영향요인, 일반시민들의 휴식과 산책, 공놀이 장소로서 활용도 높아짐

#### ○ [실천사업 2] 경기 외 방문자들을 위한 놀이/부대시설 확충

- 동호인 그룹의 방문은 차량으로, 신도시 내 거주자들은 신리천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도로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전거 거치대는 반대편 대로의 모서리 광장에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신리천 진입로에 자전거 거치대 추가설치가 필요함
-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해 경기장 주변 잔여공간에 산책로와 지압로, 어린이 놀이터, 피크닉장소, 벤치와 테이블, 관리사무소(수유실, 의무실), 어린이/성인을 위한 다양한 실내놀이시설 등을 효율적 동선으로 배치하여 경기 참여자들의 가족 동반에도 부대시설들의 역할이 중요함



[그림] 생활체육공원에 함께 설치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예시. 왼쪽부터 지압로가 설치된 산책로, 놀이터(안양 석수체육공원), 실내놀이터(sk행복드림구장), 추억의 코인타격연습장(건대입구역 앞).

### 3) 정책제안

#### ○ [주체 간 역할]

- ① 충남도 :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선정 및 매칭 예산 확보, 집행계획 수립
- ② 홍성군 : 지역주민이 원하는 체육시설의 운영방식과 추가시설 보완에 대한 수요조사 및 예산확보  
주민이 생활동선 속에서 어느 시간대에 어떤 패턴으로, 어떤 접근로를 통해 공원을 방문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 필요  
설계 및 시공업체에 대한 철저한 품질검증



### ○ [추진시 고려사항]

- 야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의 쾌적성 및 편의성 보완은 시급성에 의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가지씩 단계적으로, 그러나 수준 높은 사양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시설의 보완으로 이용수요가 증가한다 해도, 지역민의 손쉬운 접근이라는 취지를 유지하여 정해진 시간대에는 온전히 지역주민들에게 자유롭게 열려 있는 공간으로 운영함

## 5. 한옥마을과 아트빌리지

### 1) 현황 및 여건, 해결과제

#### ○ [현황]

- 부지확정 후 도로 및 토지구획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진행 중에 있음 (2020년 준공예정)

#### ○ [여건]

- 용봉상 자락에 입지하여 전망이 수려하며, 완만한 지형을 활용한다면 한옥의 선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경관 창출 가능
- 인근 덕산 온천 등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주변 용봉산 휴양림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글램핑장, 야외극장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의 운영 가능
- 관광/체험, 체류형 상가, 게스트하우스, 생활주거지로서의 기능이 조화를 이룬다면 한옥에 대한 선호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흐름을 반영한 명소가 될 수 있는 조건 보유

#### ○ [해결해야 할 과제]

- 전원에서의 삶에 대한 동경과 한옥이 주는 특별한 공간감의 가치가 한옥마을 조성 붐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있으나, 최근 조성 중에 있는 한옥마을의 사례들에서 분양수요와 대지규모의 불일치, 한옥 건축물에 적합하지 않은 비례의 대지분할 및 배치, 한옥마을 고유의 운치를 살리기 어려운 가로체계 구성, 한옥 거주 희망자들이 원하는 품격을 구현해 내지 못하는 낮은 품질의 주택 설계와 시공, 부담스러운 고가의 대지구입 및 건축비용 등의 다양한 문제 발생
- 내포 한옥마을에서는 선행사례의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방편과 계획이 대지분할 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검토가 필요

### 2) 개선방향

#### ○ [개선방향]

- 현재 확정된 마스터플랜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움
- 최근 진행 중인 은평 진관동 한옥마을(2017년 분양완료, 현재 개별가옥 건립중)과 세종시 한옥마을(2016.6월 분양완료, 현재 대지기반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진행중), 경북도청 신도시 한옥마을 등을 사례로 내포 한옥마을 계획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고자 함

#### ① 거주수요를 바탕으로 한 적정필지규모 설정

적정 필지규모의 설정은 전체 경관 측면에서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원활한 분양을 위한 필수조건임.

2012년 당시 SH공사가 조성했던 은평 한옥마을은 서울이라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3.3㎡당 700만원이 넘는 고가에 100평이 훌쩍 넘는 필지면적으로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빚었으며, 필지를 소규모로 분할하고 한옥 건축비 절감공법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17년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비로소 분양을 완료할 수 있었음. 반면, 세종시 한옥부지의 경우 88~100평 정도의 규모에 3.3㎡당 220~240만원 정도의 가격을 책정하여 299:1이라는 높은 분양경쟁률을 기록함. 내포의 경우 저렴한 토지라는 경쟁력이 있으므로, 분양 필지면적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한옥이 여유로움을 제대로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과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옥의 맛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요구를 다양하게 수용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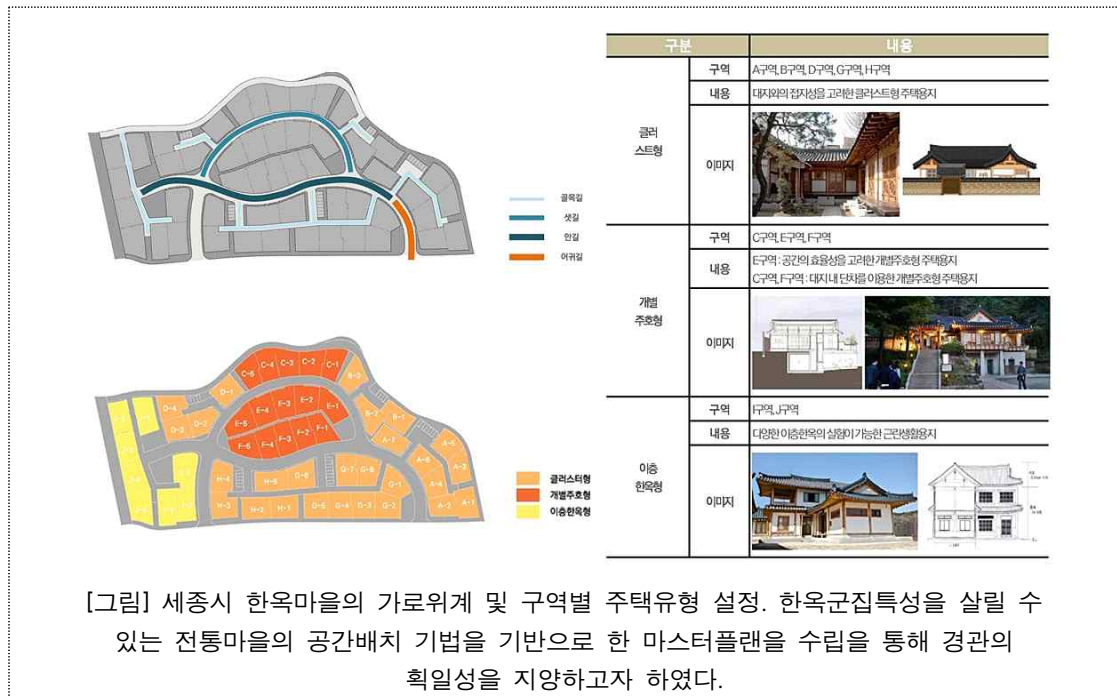
## ② 한옥 군집 형태와 어울리는 가로공간 계획

한옥마을의 정취를 제대로 구현해내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전통마을의 공간구조에 부합하는 가로체계를 들 수 있음. 큰 길에 연결된 작은 길, 다시 작은 길에 연결된 골목길을 통해 각 주호로의 진입공간이 변화 있게 구성되는 원리를 따르되, 마을의 입구를 형성하는 정자나무와 우물, 주막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을 소공원과 상가, 주민센터와 같은 현대적 공간으로 재해석해 배치한다면 흥미로운 공간구성이 가능함. 그러나 세종시 한옥마을을 제외하면 가로의 위계를 한옥마을 정체성으로서 활용한 사례가 없음. 은평과 경북도청 신도시 사례에서도 가로와 필지구획은 기존의 일반적인 택지개발에서 해왔던 대로 차량이 평등하게 접근될 수 있는 다세대주택용지와 같은 바둑판식 배열을 답습, 무늬만 한옥마을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



세종시 고운동에 조성중인 한옥마을의 경우에는 가로의 위계와 공간구조의 구성에 있어 전통마을의 모티프를 차용함. 안길(8m), 셋길(6m), 골목길(4m)의 위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용주차장을 통해 내부골목으로의 차량통행을 대폭 감소시킴. 또한 경관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10개의 구역 세분화와 각각의

주택유형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고 있음. 아직 구체적인 건축물의 건립결과가 드러나지 않아 가로경관의 우수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으나, 건물과 길이 함께 만들어내는 공간감에 있어서는 훨씬 더 풍부한 깊이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③ 한옥의 비례와 높이를 감안한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성

가로와 공공공간에 대한 세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 필지에 들어서게 되는 한옥의 폭과 깊이, 비례 등에 대한 지침이 없다면 용적률 및 층수확보 및 실내공간 중심의 설계로 한옥의 본래 멋을 살릴 수 없는 경관이 창출됨. 은평 한옥마을의 경우 마을 전반에 걸쳐 2층 한옥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1층 건물이 군집 배치됨으로 인해 중정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한옥마을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깨는 발상임. 자칫 잘못하면 용적률을 최대로 확보한 2층의 한옥군집은 저층주거지의 다세대 주택군과 별반 다른 없는 주거환경에 놓이게 될 위험이 있음



[그림] 은평 한옥마을. 2층 한옥의 무분별한 허용은 한옥 고유의 특성인 마당과 채의 프라이버시 보호기능을 무너뜨린다.

은평 한옥마을에 일렬로 늘어선 거대한 2층의 한옥상가들은 한옥마을이 줄 수 있는 아늑함과 고즈넉함을 가장 해치는 요소가 되고 있음. 재료의 선택이나 건축물 높이, 입면분절 등에 있어 한옥의 맥락을 존중한다면, 굳이 모든 건물을 한옥의 형식으로 고수해야 하는지 재고해볼 필요도 있음. 오히려 획일성을 탈피할 수 있으며 주요 지점에서 마을의 랜드마크로 기능할 수 있는 독특한 건축물이 마을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은평 한옥마을의 거대 2층 상가군집은 획일적 경관의 양산과 2층 한옥의 실험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아쉬움을 남기는 장면이다.

세종시의 경우 한옥 특성을 고려한 배치와 공간구조 구현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대지의 크기에 상응하는 건물 폭 등 전체 건물의 비례를 해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규정은 부족한 편임. 내포 한옥마을 계획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면, 지금까지 조성된 그 어떤 마을보다 공간적, 미적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④ 관광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접목

다양한 이유로 내포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관광/숙박을 이끌어내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알찬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들이 동반될 필요가 있음. 은평 역사한옥박물관의 경우 마을 개발 시 출토된 유물유적과 함께 한옥과 관련된 전시체험 프로그램, 고가구 제작 수업 등을 운영하여 관광객과 거주민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내포 한옥마을의 경우 내포와 관련된 백제문화의 소개, 한옥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전시관과 함께, 한옥마을에 적용된 개량된 한옥 소개, 한옥 모델하우스 형식의 체험관 건립을 고려해볼 수 있음. 숙박과 관련된 체험으로는 한옥마당이 갖는 매력과 공간감이 재현된 게스트 하우스 또는 전통호텔을 건립하여 지역특산물 등으로 조식을 구성하고, 한복이나 소품 등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접목하는 것도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임. 서천에 있는 문헌서원/문헌전통호텔의 경우 마당이 있는 한옥에서 머무는 경험과 함께 조식과 석식을 예약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여 서천 여행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또한 2020년경 철거되는 내포 홍보관에 있는 주요 자료들을 한옥마을 전시관을 건립하여 함께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그림] 서천(국립생태관 등) 여행자들에게 특별한 한옥에서의 하룻밤을 제공하는 문헌전통호텔 및 한식서비스

#### ○ [실천사업 1] 한옥 건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 마스터플랜 수립과 함께 개별건축물의 건축행위를 심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정리될 필요가 있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내부공간의 극대화와 마당의 최소화를 통해 비례가 깨지는 건축물의 형상이 마을경관 전체를 해치게 되는 현상을 막을 수 없음
- 높이, 단위치수로서 칸의 최소/최대한계 제시,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 마당의 구조 등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 ○ [실천사업 2] 숙박과 한식, 한복 체험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 기획

- 숙박 뿐 아니라 의식주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한복 대여가 가능하며 예약시 한식이 조식/석식으로 제공되는 게스트하우스를 기획, 운영함

### ○ [실천사업 3] 체험, 전시공간 기획

- 내포의 역사와 백제문화, 한옥의 구조와 공간에 대한 이해와 목가구 제작 등 체험이 가능한 전시관을 함께 기획함

## 3) 정책제안

### ○ [주체간 역할]

- ① 충남도 : 한옥마을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발주 및 예산확보, 한옥마을과 접목된 적합한 시설의 선정 및 민관협력방식 결정, 매칭펀드 마련
- ② 홍성군 : 거주민들의 수요조사 및 주민사업자 발굴, 선정
- ③ 민간 :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아이디어 발굴작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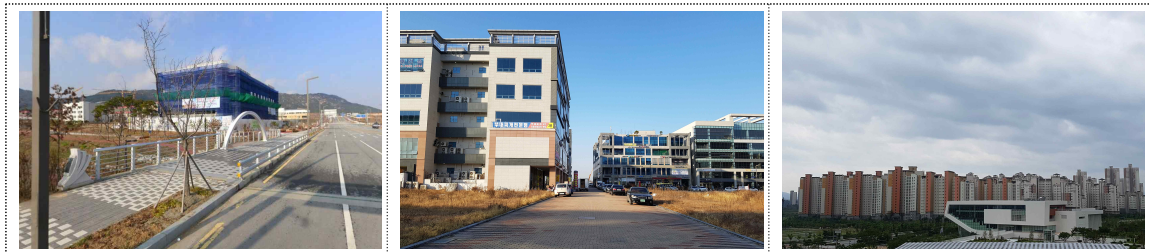
### ○ [추진시 고려사항]

- 기 조성된 한옥마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사하되, 행정담당자와 입주자 양쪽의 의견을 균형 있게 판단/수용하여 가이드라인 수립에 참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계획대지에 대한 미분양분이 발생하더라도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완화 등의 조치를 급하게 취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을 계획초기부터 염두에 두어야 함

## 6. 안전하고 깨끗한 5무 도시 명소화

### 1) 현황 및 여건, 해결과제

- **[현황]** 내포신도시는 경관을 해치는 5가지 시설(전신주, 육교, 담장, 쓰레기, 입간판)이 없는 아름다운 도시, 개성 넘치고 안전한 건축물 및 시설물, 장애인·노약자 등이 장애를 느끼지 않고 살아 갈 수 있는 무장애 도시를 표방하며 조성 중
- **[여건]**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물리적 공간 구조(토지이용, 도로 등) 구성의 경우 비교적 짜임새 있게 조성되어 있으나 도시 이미지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영역의 건축물, 옥외광고물 등의 경우 충청남도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발생
- **[해결해야 할 과제]** 전신주, 육교 등의 하드웨어적인 구조물 설치를 지양하는 점은 가시적으로 느껴지지만 교량 구조물의 기능과 관련 없는 장식적인 조형물 설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웬스 등의 디테일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되며, 특히 모든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통해 민간영역의 도시경관을 제어하고자 하였으나 정량적 기준이 모호한 색채의 경우 심의위원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 일부 공동주택 색채의 경우 이질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심상업지구 내 상업건축물의 경우 저층부 필로티 형태를 도입하여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필로티 규모, 기둥부의 형태, 재질 등이 정돈되지 못하여 특색 있는 경관 연출에 있어 한계가 나타나는 실정



### 2) 개선방향

#### ○ 도시경관 제어 효과 향상을 위한 경관심의 가이드라인(정량적 기준) 마련 필요

- 기 수립된 내포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일관된 적용을 위한 심의 위원, 관련 공무원 교육
- 기 조성된 건축물과의 관계성을 고려한 색채, 재질,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 지구단위계획지침으로 인해 확보된 공개공지와 공공영역의 공유화로 인한 정돈된 가로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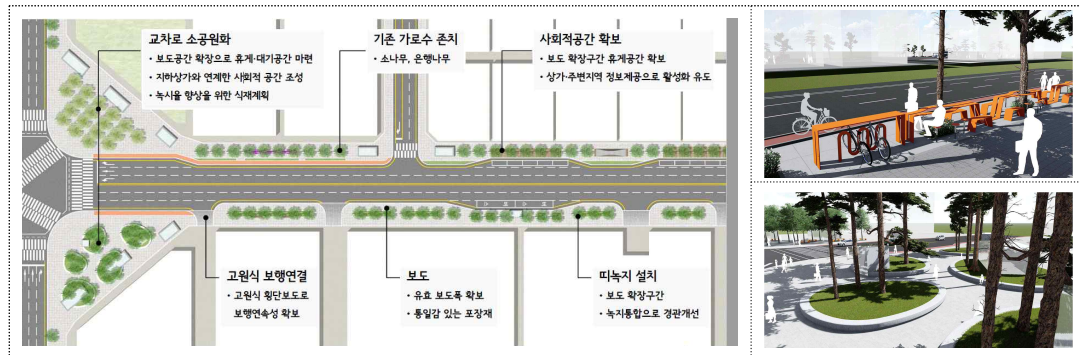
## ○ 민간영역의 참여도가 중요한 옥외광고물, 담장설치 등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 아름다운간판 공모 등의 이벤트를 활용한 가치관 변화 도모



## ○ 무장애 도시 구현을 위한 보행친화 공간 조성

- 문화 체험, 경관개선을 위한 보행자 중심 도시로의 패러다임 변화
- 특화거리, 주요 보행루트 연결부에 만남 등의 사회적 공간 마련
- 주요 도심부의 적극적 속도제한 실현
- 끊김없는 보행길 완성(교차로 전방향 횡단보도 조성)
- 편리한 보행길 완성(주요가로변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고원식으로 전환)
-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연계 시스템 구축(보행접근영역 확장)



### ○ 도시의 배경이 되는 도시구조물, 시설물 조성

- 과다하고 복잡한 장식적 디자인 요소를 지양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정감 있는 디자인 연출
- 이용자의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한 활용적인 디자인
- 주변 경관자원과 일체감 있고 경관적인 안정감, 구조미가 가미된 디자인
- 친환경적인 요소(자연소재, 녹화)가 가미된 디자인



### 3) 정책제안

○ [주체 간 역할] 5무 도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 조성된 전신주, 육교 등의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담장, 쓰레기, 입간판 등의 아이템의 경우 민간의 참여도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홍보, 교육하여 5무 도시의 가치관을 민간분야가 공유할 수 있을 때 실현 가능 (ex 사회적 공동체 활성화, 경관협정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 [추진 시 고려사항] 개성 넘치고 안전한 건축물 및 시설물이 있는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는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의 각종 심의제도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적극적인 컨트롤이 필요하지만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도를 높여줄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또한, 표방하고 있는 5무 도시(전신주, 육교, 담장, 쓰레기, 입간판) 콘텐츠의 경우 타지자체와의 차별성이 낮고 시민의 체감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장기적으로 보행자 중심의 통합교통 시스템, 무장애 도시의 실질적 구현을 목표로 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 7. 내포혁신플랫폼

### 1) 현황 및 여건, 해결과제

#### ○ [현황]

- 홍예공원 내 보건환경연구원 옆 부지에 현상공모를 통한 설계업체 확정(2018. 6)
- 2018년 8월 현재 당선안에 대하여 계획안 확정을 위한 조정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
- 설계공모 당시 충남도 급식지원센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 협의회 등 14 곳의 중간조직이 입주 희망
- 현재까지 공공주도로 시도된 적이 없는 혁신적인 공간개념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 및 공간 운영자들이 모여 단순히 자원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충남도와 내포 신도시가 해결해야 할 여러 분야의 과제들을 보다 개방된 플랫폼에서 논의될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감 고조

#### ○ [여건]

- 내포혁신 플랫폼 예정부지는 방사선 도로가 집중되는 공간적 중심인 홍예공원 내에 위치해 있으며, 외부 방문객들에게도 교통접근성 측면에서 비교적 유리한 장소에 위치
- 고속버스를 이용해 내포신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로변보다는 홍예공원 내부산책로를 이용한 접근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

#### ○ [해결해야 할 과제]

- 변화와 혁신이 비즈니스와 조직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 된 만큼, 충남도에서 처음 내포에 구현하는 공공주도의 플랫폼 조성은 지역의 과제를 혁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많은 지자체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혁신플랫폼은 공공에서 파생된 중간지원조직과 가치지향적인 사업자들에게 단순히 공유공간을 지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혁신적 아이디어들이 끊임없이 제안되고, 시장성과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채택과 소멸이 반복될 수 있는 하나의 개방된 ‘장’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과제 보유
- 상호작용이 가능한 새로운 사무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공간적 고민과 함께, 무엇보다 총괄 운영자가 혁신의지를 가지고 플랫폼의 개방적, 수평적 구조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

## 2) 개선방향

### ○ [개선방향]

-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지식, 기술이 쌍방향으로 이동하며 자유로운 의견이 개진, 발전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 및 활성화와 함께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오프라인 지원체계를 동시에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며, 지역의 현안에 해법을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사업자들에게 창업플랫폼 지원이 핵심적인 작업이 될 것임
- 가치지향적인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지원으로서 아이디어의 평가/실행, 시제품 제작 및 장비사용, 시장탐색과 수요발굴, 자금조달, 역량강화(교육), 교류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인지 검토가 필요함
- 이는 청년창업가, 스타트업 팀들이 정책수혜자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개선사항과 프로그램을 인지, 제안할 수 있고, 정책수립자 입장에서도 기존정책에 대한 빠른 보완 및 현장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 ○ [실천사업 1] 사업역량 육성형 아이디어 플랫폼 구축

- 아이디어 또는 솔루션을 제안한 팀의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투자자 등의 외부네트워크를 통해 이들을 매력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투자대상으로 성장시키는 방식임
- 미국의 Y콤비네이터는 역량 육성형 민간 플랫폼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들의 역량강화 시스템과 시장성 획득을 위한 지원방식은 최초의 제안 아이디어 및 솔루션이 공공지원 종료 후 생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 시사점을 줌

#### Y 콤비네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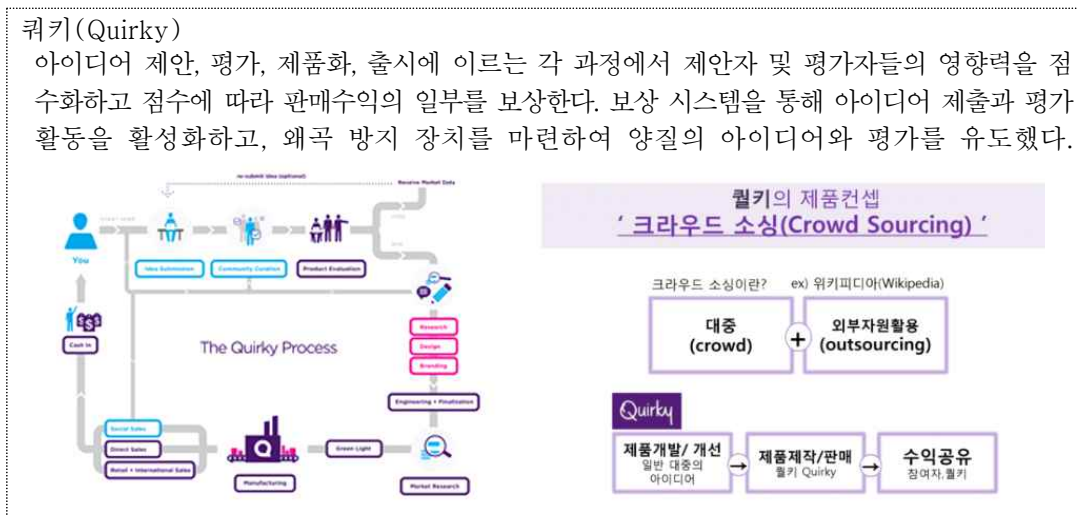
미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startup) 전문투자 인큐베이터다. 2013년까지 30여개국 500여개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했고,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숙소공유 앱프로그램인 에어비앤비(Airbnb),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한 파일호스팅 서비스회사인 드롭박스(Dropbox), SNS 및 뉴스웹사이트인 레딧(Reddit)이 있다. 유망한 아이디어 제안팀이 선정되면 3개월간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YC 파트너들이 아이디어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성장전략을 정리해내는 데 체계적인 조언을 준다. 3개월의 프로그램이 끝나면 데모데이(Demo Day) 행사를 열어 투자자들에게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만듦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팀들은 일회성 정책수혜자들이 아닌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파트너 개념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후일 인재 영입, 판로 개척, 서비스 소개 등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용 SNS를 만드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 ○ [실천사업 2] 클라우드 펀딩형(소셜 평가형) 플랫폼 구축

- 최근 한국에서도 포털이나 SNS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유형으로, 일반적 외부참여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역시 일반인 평가자들이 판단하여 채택된 아이디어를 제품 등으로 구현해내는 방식임
- 대표사례로 퀴키(Quirky)와 킥스타트 등이 있으며, 이들의 성공은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운영주체를 정부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했음



### ○ [실천사업 3] 인큐베이터 사업을 위한 유연한 공간대응능력의 검토

- 내포혁신 플랫폼에는 공유오피스, 오픈라운지, 회의실 및 코워킹 공간, 인큐베이팅 룸, 외부마당이 구비되어 있음.
- 중간지원조직의 업무성격과 필요한 공간은 예상가능하나, 인큐베이팅 룸의 사용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업종이나 업무특성에 맞춘 공간의 유연한 변형과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민간 공유오피스의 경우 특정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데, 패션, 예술, 건축 분야에 특화된 공유오피스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음. ‘무신사 스튜디오’는 다른 업종에 비해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패션디자이너들에게 패턴실, 수선실, 촬영 스튜디오, 물류창고와 택배보관실 등의 공간을 제공하며, 예술작가들을 위한 ‘아트업 서울’ 신진 작가들의 창작, 전시, 수익, 홍보활동을 돕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예술과 접목된 마케팅을 펼치는 기업과 작가의 연결사업 등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음.
- 내포혁신 플랫폼 입주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의 주력사업 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간구조 등이 이를

지원/수용할 수 있는 규모와 계획인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최종적으로 필요함



패션디자이너와 건축가들을 위해 특화된 공유오피스(무신사 스튜디오, 에이라운지)

### 3) 정책제안

#### ○ [주체간 역할]

- ① 충남도 : 내포혁신 플랫폼이 아이디어의 수평적 교류와 냉정한 평가가 공존하는 개방형 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운영자와 파트너들의 선발, 육성 및 이를 위한 예산확보
- ② 홍성군 : 충남도, 홍성/예산군 거주자들의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고유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과 공론의 장 마련, 정책 수혜 대상자들과 일반 시민들에 대한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민간 공유오피스 사업자들과의 자문 등 교류를 통한 시장의 흐름 파악
- ③ 민간 : 지역 현안과 대응책을 마련하는 개방형 플랫폼에서 공공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업방향 모색

#### ○ [추진시 고려사항]

-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주체가 사회적 가치창출과 더불어 시장경제 속에서의 자립이 가능한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작동하는 역량강화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
- 이는 공공의 지원방식이 내 외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의미

## 8. 저녁 삶이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거리 명소화

### 1) 현황 및 여건, 해결과제

- [현황] 내포 중심상가 주변 건축물에 대한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젊음의 광장(트릭아트, 포토존, 상징 조형물 등)을 조성하여 사람들이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특화가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물리적 구조 개선 뿐만 아니라 충남 15개 시군 향토적인 맛집 거리 조성 등의 콘텐츠에 있어서도 차별화를 도모
- [여건] 현재 주요 대로변의 경우 상업건축물 조성이 많이 이뤄져 있으나 특화가로의 핵심 공간인 중심보행자전용도로 축의 경우 건축물 조성이 미미하여 공간이 활성화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실정
- [해결해야 할 과제] 충청남도에서 지향하고 있는 상업지역 중심의 아케이드 특화가로 조성을 위해서는 기 조성된 건축물과 향후, 입지할 건축물의 필로티 형태, 건축물의 색채, 층고 등의 다양한 아이টে에 대한 관계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형고압블럭으로 포장된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도 공공 디자인 개념의 특화공간을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 대로변 건축물 전면의 공개공지는 단순 포장으로 비워져 있어 활용도가 매우 낮아 향후, 저층부에 입주한 업소 특성 및 가로별 스토리 구상을 통한 특화공간의 조성이 필요



### 2) 개선방향

#### ○ 다양한 이벤트를 수용할 수 있는 가변적 상업특화가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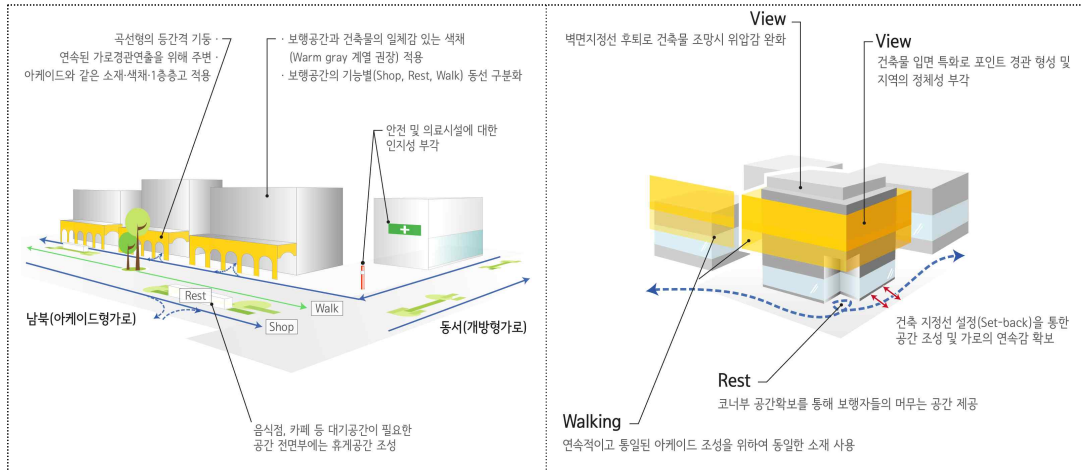
- 다점포식 판매시설의 확대, 리테일이 대두되는 라이프스타일 등 빠르게 변화하는 상업지역의 특성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가변적 시설 도입





## ○ 통합된 건축물 양식의 적용을 통한 테마가 있는 건축물 경관 조성

- 기 조성된 연접 건축물과의 관계 고려(층고, 색채, 아케이드 형태 등)
- 주요 결절부 건축물 입면 특화를 통한 랜드마크 경관 연출(미디어파사드)



## ○ 주요 대로변 공개공지의 실질적 공유를 통한 테마가로 조성

- 의미 없이 비워진 공간에 스토리가 있는 시설(어닝, 테라스 등)의 설치를 통한 가치 향상
- 주요 가로 특성을 고려한 테마 수종 식재로 녹음과 휴식이 있는 가로 쉼터 조성
- 민간부분(전면공지)과 공공부분(보도)이 만나는 부분은 설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바닥패턴 및 재료 등이 서로 이질적이지 않도록 통일성 부여
- 건물의 가각부에 공지를 충분히 확보 하되 인접 건물과 연계가 가능할 경우 집중 배치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도



## ○ 주요 건축물 입면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여 정보공유 및 소통수단으로서 입면 특화

- 건축물입면을 통해 다양한 정보전달이 되도록 LED를 삽입한 재질을 권장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질을 계획

-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파사드를 공유 가능하도록 지원용도 건축물 입면, 광장에서 잘 조망되는 건축물에 주로 설치
- 미디어파사드 관련 통합 운영시스템: 관리주체, 입주기업 간의 영상 내용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조직



### 3) 정책제안

#### ○ [주체 간 역할]

- 특색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주요 골격을 형성하는 민간 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공공분야의 일관된 정책 실현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공공기관에서는 경제적 논리가 우선한 기반시설 실시계획에 의존하지 않고 물리적 공간 형성 기준을 마련하여 초기 계획 개념을 유지하고자 하여야 함. 특히, 민간분야의 옥외광고물이나 전면공지 등의 활용에 대한 사항은 민간의 의지에 따라 경관이 달라 질 수 있음. 초기 마스터플랜이나 실시계획 및 개별블록 계획이 잘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분양 이후에는 이의 관리나 유지가 어려운 것이 현실
- 따라서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계획단계-시공단계-관리단계 각 단계별 지원 및 협의를 통해 함께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

#### ○ [추진시 고려사항]

- 지금까지의 신도시 조성에 있어서의 선례를 보면 물리적 공간 형성 기준의 부재, 공간계획과 입지 계획 등 계획 과정의 불일치, 공급자 중심의 관리체계 등의 문제점이 발생
- 내포신도시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문제점으로 인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경계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공간디자인 수준의 저하, 제도 및 지침 / 분양성 등 제반 조건에 따른 계획안의 융통성 요구에 대해 경직된 지구단위계획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민간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변경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도시경관 등의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

## 9. 게이트 야간 경관 명소화

### 1) 현황 및 여건, 해결과제

- 내포 신도시는 2013년 충청도청과 충청도의회 이전 이후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
- 내포신도시 게이트 야간 경관조명은 내포신도시를 부각시키고 다른 도시와 차별화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디자인 요소이며 내포신도시의 배치상 야간경관조명의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 장소는 내포 신도시의 한 가운데 진입부에 있어 일종의 관문과 같은 성격이 부여될 수 있는 진입의 중심에 위치
- 현재 내포 신도시의 야간 경관은 낮의 모습과 비교해서 매우 한적한 느낌의 인상 부여하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조성중인 신도시이고 상업시설이 부족하여 야간의 모습은 여타 도시의 화려한 인상과는 차이가 발생
- 우리가 기억하는 도시의 밤은 낮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 이미지를 남기는데 밤이 되면 더 화려한 도시가 있고 서울처럼 새벽까지도 활동을 멈추지 않는 도시 존재
- 내포 신도시는 여타 대도시와는 다른 조건과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계획도시인 만큼 도시의 인상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입장

### 2) 개선방향

- 조명은 보통 자연 채광과 구별하여 인공조명을 의미하며 각종 광원을 이용하여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장소를 밝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색채를 구분할 수 있는 것도 빛의 역할 때문
- 빛은 물리적인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울증과 자연 채광과의 관계 등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 사실
-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요소 중에서 건축물의 매스와 형태는 경관 조명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표현을 확장할 수 있으며 밤이 찾아오면 낮에는 볼 수 없는 조명의 다양한 표현을 이용하여 더욱 더 다양한 의도된 연출이 가능
- 미국 세인트루이스에는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게이트웨이 아치(Gateway Arch)가 있다.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미시시피 강변에 있는 192m 높이의 기념 아치이며 미국의 건축가 에로 사리넨(Eero Saarinen)에 의해 디자인된 이 아치는 세계 최고 높이의 아치
- 이 건축물은 미국의 미시시피 강 너머 서부 영토 확장을 기념하기 위해 1965년 준공되었으며 아치 내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상부에서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있도록 제작되었고 서부로의 관문을 상징하기에 아치 형태는 매우 상징적이며 스테인레스 강으로 마감된 외부는 경관조명에 의해 더욱 더 기념비로서의 역할 수행



게이트웨이 아치 야경

-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경관 조명으로 유명한데, 홈페이지를 통해 조명계획을 공지하고 하고 국가기념일 등을 색채 조명으로 상징적으로 표현
- 필자는 유학시절 10여 킬로미터 이상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보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조명 색상이 때때로 바뀌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20년도 더 지난 일이라 기억이 희미하지만, 어둠속에서 저 멀리 다양한 색채로 채색된 듯 한 엠파이어 빌딩의 경관 조명은 매우 인상적
- 1976년부터 시작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야간 조명은 색채를 바꿔서 다양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으며 사유 재산인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자체 심사를 통해 신청자의 조명 요청을 선정하여 적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경관 조명

- 런던 아이(London Eye)는 최근 영국 런던을 대표하는 관광지이며 랜드마크로 런던 템즈 강변 빅벤의 건너편에 위치하는 대형 회전 관람차이며 런던 아이의 원래 명칭은 밀레니엄 휠(Millennium Wheel)
- 런던에서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4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계획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밀레니엄 휠이고

나머지가 밀레니엄 브리지(Millennium Bridge), 테이트 모던 갤러리(Tate Modern Gallery), 그리고 밀레니엄 돔(Millennium Dome)이었으며 런던 아이는 새로운 런던의 랜드마크로서 그리고 경관 조명의 성공 사례로 기억

- 연간 300만명의 방문객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런던 템즈강변을 대표하는 경관 요소로써 조명과 거대한 대관람차의 움직임에 의해 가장 주목을 끄는 영국의 가장 유명한 관광 장소



런던 아이 경관 조명

### 3) 정책제안

- 경관조명은 도시의 첫인상의 이미지를 만드는 디자인 요소이며 주간에 보이는 시각적 요소보다 경관조명은 보다 더 연출적 요소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
- 내포신도시의 스카이라인은 여타 대도시와 비교하면 단조로운 특징을 갖는데 도시의 경관조명은 보통 고층건물군의 스카이라인을 표현하거나 문화재, 공공 건축물,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과 같은 랜드마크를 비추는 조명과 전망 포인트에서 파노라마를 연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표현 방법
- 내포신도시의 경관 조명은 입지 특성상 통과보다는 진입시점의 관문과 같은 상징성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며 세인트 루이스의 게이트웨이 아치의 사례와 같이 관문의 성격을 경관조명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
- 그리고 현재 경관조명 설치 예상 지점은 하천과 근접하고 있는데, 경관조명의 효과는 하천과 호수 등의 반사 요소가 연출 효과를 매우 강화하므로 입지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런던 아이나 게이트웨이 아치 모두 하천의 반사 효과가 랜드마크 및 경관조명 효과에 잘 표현된 사례들이기 때문에 참고 가능
- 조형물의 규모는 내포 신도시가 입지한 평야지대의 특성상 다소 작은 규모라도 시인성에 있어서 유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
- 그러나 작은 조형물을 나열하여 형성하는 야간경관 연출보다는 시각적으로 돌출된 뚜렷한 인상의 상징물이 더 효과적인 도시이미지 만들기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조명 사례와 같이 경관조명은 색채를 이용한 다양한 표현이 가능



- 내포신도시 게이트 야간경관 조명과 더불어 내포 신도시 내의 여타 랜드마크와 경관조명에 색채를 이용한 아이덴티티 개념을 적용한 디자인 연출을 적용한다면 보다 더 효과적인 도시 이미지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

## 10. 15개 시·군 상징테마광장 명소화

### 1) 현황 및 여건, 해결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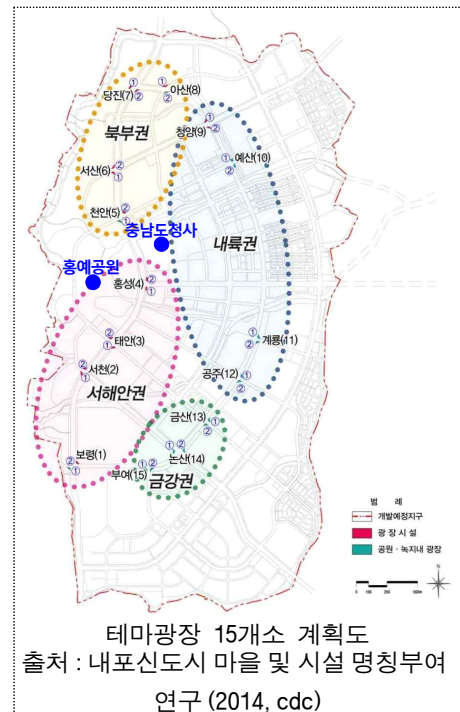
○ **[현황]**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2006년부터 조성되고 있는 내포신도시는, 도시의 볼거리(명소) 부족이라는 신도시의 태생적 취약점 보유

- 이와 같은 문제는 시간의 경과로 해결될 문제이긴 하지만, 내포신도시만의 정체성, 특히 충남도청 소재지라는 상징성을 가지기 위해 지금부터 명소를 발굴하고 육성하려는 계획은 바람직

- ‘15개 시·군 상징 테마광장(이하, 테마광장)’은 도민화합과 어울림 공간 마련을 목표로 내포신도시 주요 교차로에 15개 시·군을 상징하는 수목, 상징물을 설치하는 프로젝트

○ **[여건]** 테마광장은 2020년 완성을 목표로 현재 5개소(공주, 논산, 태안, 홍성, 예산)가 조성된 상태

- 그러나 자체 발굴한 ‘내포신도시 자랑거리’ 18개 명소에 대한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테마광장은 12위로 나타나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내포신도시 자랑거리 중에서는 후순위에 있는 상황



○ **[해결과제]** 내포신도시 명소 만들기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명소는 ‘생활명소’, 그리고 외지인에게 알리고 싶은 명소는 ‘도시명소’로 구분하여 접근 필요

-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 현재 내포신도시 자랑거리로 발굴한 18개 명소 중 대부분은 생활명소(충남 문화시설단지, 문화예술거리, 생활체육시설 등)에 포함되며, 도시명소로 육성할 수 있는 아이টে은 홍예공원, 충남도청사, 테마광장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판단

- 즉 테마광장은 내포신도시가 충청남도의 중심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매력 있는 아이টে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

- 현장답사를 통해 발견한 가장 큰 문제점은 테마광장 자체의 인지도가 미약한 상태

- 충남도청 관계자의 설명을 듣지 않으면 그 장소가 테마광장인지를 전혀 알 수 없으며 내포신도시 전역에 분산 배치시키면서 통일된 요소가 없어 하나의 테마광장으로 인지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

### 2) 개선방향

○ [개선방향] 개별 테마광장의 인지성 향상과 함께 15개 테마광장의 개별적 다양성 속에 동질성을 부여 하여, 전체가 하나의 광장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목표로 계획

○ [실천사업 1] 테마광장 인지성 향상을 위한 ‘폴리(Folly) 설치사업’

- 폴리는 ‘기능을 담을 수 있는 장식적 건축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 라빌레트 공원의 폴리
- 라빌레트 공원은 파리 외곽의 대규모 도축장과 가축시장(약 347,000m<sup>2</sup>)을 폐쇄하고 공원으로 재탄생 시킨 곳으로 베르나르 추미(Bernard Tschumi)가 설계를 담당하여 1987년에 개관한 이래 현재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원 중 하나
- 부정형의 광대한 라빌레트 공원에 격자형 패턴으로 설치된 붉은 점과 같은 35개의 폴리는 공원 전체를 하나로 인식시켜 주며, 내방객에게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폴리는 공원에서 필요로 하는 매표소, 식당, 정보센터, 전망대 등의 기능도 보유
- 국내에서는 광주광역시에서 ‘광주폴리(<http://gwangjufolly.org>)’라는 이름으로 도시재생사업에 폴리를 활용하여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전개



- 내포신도시는 15개 시군의 수목과 상징물로 테마광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하여 폴리라는 공통의 요소를 설치하는 사업 검토가 가능
- 폴리 설치를 통해 현재보다 개별 테마광장의 인지성을 높일 수 있고, 최소한의 공통 기준(단위면적, 색상 등) 내에서 다양하게 계획된 폴리가 테마광장에 설치된다면, 15개 테마광장은 차별성과 동질성을 가지는 하나의 광장으로 인지가 가능

- 15개 폴리는 각 지자체의 기본 정보 소개, 축제 안내와 지역 특산물 등을 현장에서 바로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담은 터치형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공통으로 설치하고, 광장에서 필요한 시설(카페, 놀이터, 주류장, 공중화장실, 휴게공간 등)과 결합시키면, 현재 테마광장 계획보다는 인지성 및 광장 자체의 활용성도 제고

#### ○ [실천사업 2] 24시간 도시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야간 경관조명 사업’

- 신도시는 단기간에 비슷한 양식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비슷한 경관을 보유하고 이로 인해 본인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인지하기가 어려움
- 외부에서 온 방문객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고, 야간이면 더욱 더 그러할 것
- 테마광장은 도시 내 주요 도로를 따라 조성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만 개방하는 통상적인 공원시설과는 달리 24시간 개방성을 가져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의 활용도에 대한 고민도 필요
- 그래서 제안하는 실천사업 아이템이 테마광장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내포신도시 나침반 역할을 부여
- 광장바닥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여도 되고, 앞에서 말한 폴리의 벽면 일부를 라이팅 월(lightning wall)로 처리하는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 테마광장은 주간과는 또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으며 24시간 도시의 이정표 역할
- 오른쪽 사진은 일본 동경의 신주쿠 역 앞 주간과 야간의 모습인데 같은 장소이지만 낮과 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짐
- 이처럼 같은 장소, 같은 시설이지만 주간과 야간에 따라 다른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은 도시라는 장소만이 가지는 매력이란 점을 활용
- 그리고 테마광장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다면, 현재 내포신도시 자랑거리 중 하나로 계획하고 있는 ‘게이트 야간경관’ 사업은 이 사업으로 대체 가능



동경 신주쿠 내 동일 장소의  
주간·야간경관  
출처 :

都市照明環境と夜間景観体験分析にもと  
づく都市夜景に関する研究

#### ○ [실천사업 3] 회유(回遊)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 공유자전거 사업’

- 15개 테마광장이 내포신도시를 순환하는 도로 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광장 전부를 둘러 보는 것은 곧 내포신도시 전체를 둘러보는 것과 동일
- 따라서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와 특색 있는 폴리로 구성된 15개 테마광장을 수월하게 둘러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테마광장의 활용성 증대가 가능

- 이를 위해 제안하는 실천사업 아이템이 공유자전거를 운영하여 사람에게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
- 공유자전거용 주류장 기능을 가진 폴리를 3-4개의 테마광장에 설치하면 외지에서 온 방문객은 공유자전거를 타고 편하게 테마광장을 둘러볼 수 있을 것이며, 인근의 다른 명소(홍예공원, 충남도청, 에너지마을, 문화예술거리 등)로 접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짐
- 이렇게 설치된 공유자전거는 내포신도시 주민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용 할 수 있는 이동 수단으로 활용
- 그리고 전기구동장치나, 스마트폰으로도 대여할 수 있는 IoT 기술을 공유자전거에 접목시킨다면, 내포신도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
- 스마트 공유자전거 사업은 내포신도시 자랑거리로 구상하고 있는 ‘신도시 전역의 생활레저형 자전거 등 도로망’ 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 발생 가능

### 3) 정책제안

- [주체 간 역할] 내포신도시시는 홍성군과 예산군의 행정구역을 공유하면서 건설된 복합경계신도시로 단일 지자체 내에 조성된 신도시와는 달리 두 지자체 간 상호 공감대가 중요하며, 이를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은 충청남도의 중요 역할
- 그리고 폴리에 담길 지자체 홍보용 콘텐츠는 15개 시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같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가 중심이 된 15개 시군 협의체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서 설치부터 사후 운영관리에 요구되는 공통의 자원마련 방안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주도록 역할 부여
- 테마광장은 공공의 자산이기 때문에 핵심주체로서 시민 참여의 필요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
- [추진 시 고려사항] ‘주체 간 역할’에서 잠시 언급하였지만, 테마광장의 성공여부는 물리적 공간 및 시설 조성도 중요하지만, 조성 이후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핵심이며 따라서, 운영관리 단계로 넘어오면 일관된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사업 전개를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회적 기업을 육성시키는 방안도 함께 고민 필요
- 그리고 여기서 제안한 실천사업은 기존 내포신도시 자랑거리 사업과 연계해서 수행할 수 있는 아이템도 제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기존 사업과의 통합연계도 충분히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사업을 집중시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11. 랜드마크 빌딩 명소화

### 1) 현황 및 여건, 해결과제

- [현황] 내포 신도시는 2006년 도청 이전 결정 이후 2009년 6월 공사를 시작으로 2013년 충남도청과 충남도의회 이전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충남의 행정 중심으로서 그 위상을 키워나가고 있음
- [여건] 내포 신도시의 위치는 예당평야 지역으로 대부분 지역이 평탄하고 신도시 서쪽에는 용봉산과 수암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도시 남동쪽으로 흐르는 신경천이 도시 외곽의 삼교천으로 합류하는,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배산임수의 형태임
- [여건] 내포신도내에 계획되어진 파워 센터 랜드마크 빌딩은 파워센터 2 개의 부지에 충과 효를 상징하는 쌍둥이 형태의 수직적 랜드마크로 기초 계획 되어 있으며, 내포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충남 홍성군은 독립운동과 충절의 고장으로 유명하여 또한 예산군은 윤봉길의사의 고향으로 유명하여 홍성군과 예산군을 상징할 수 있는 충 효 두 개의 키워드가 어떻게 나왔는지 짐작이 가능함
- 랜드마크는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길 찾기를 위한 존재물을 의미하며 랜드마크는 주변 환경에 두드러져 보여서 가까운 곳에서 만이 아니라 먼 거리에서도 인지할 수 있는 건물이나 장소를 뜻함, 그러나 오늘날에는 뜻이 더 확대되어 건물이나 타워, 문화재, 상징물, 조형물 등이 어떤 곳을 상징적으로 대표할 때 랜드마크라고 칭함
- 내포신도시는 조성 이후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아직까지 내포신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뚜렷한 인상을 심어줄 랜드마크를 떠올리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배경에서 내포신도시를 뚜렷이 표현할 상징물의 존재가 절실한 상황

### 2) 개선 방안

#### ○ 랜드마크의 가치

- 에펠탑은 준공 당시 많은 비판을 받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당시에 탑을 싫어했던 소설가 모파상은 점심을 의도적으로 탑 안의 식당에서 해결했다고 함. 왜냐는 질문에 대한 그의 답은, 이곳이 파리에서 유일하게 그 건물을 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으며 1889년 당시의 파리에 서 300미터가 넘는 에펠탑은 파리의 어디에서든 쉽게 눈에 띄는 건축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음
- 1930년 에펠탑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이라는 지위를 빼앗았던 뉴욕의 크라이슬러 빌딩은 단지 일 년 만에 그 지위를 같은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게 내주었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불과 일 년 남짓의 기간 동안에 완공되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은 초고층 랜드마크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 것이었는지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그 후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지어질 때까지 41년간 세계 최고층 빌딩의 명성을 유지
-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최근 완공되어 서울의 스카이라인에서 뚜렷한 자태를 뽐내는 롯데월드

타워는 123층 높이에 555미터 높이로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로 알려져 있는데, 필자 개인적으로 서울 동부에 집이 있어서 잠실이나 강남 부근을 자주 운전하면서 지나다 보면 롯데월드타워는 수시로 눈에 들어옴.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롯데월드 타워는 주변의 군사 시설인 성남의 서울공항의 활주로 진행방향과 마주하여 1987년 롯데그룹의 부지매입 이후 건설에 우여곡절이 많았으며, 상식적으로는 건설이 불가능할 만큼의 어려운 프로젝트였지만 결과적으로 롯데월드 타워는 완성되었고 최고를 향한 욕망과 상징성은 많은 비리와 의혹을 뒤로 한 채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음

## ○ 개선 방안

- 아직 내포신도시의 랜드마크 빌딩은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된 상태가 아니며 이제 내포신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써 조성하고자 계획하는 단계
- 앞에서 파리의 에펠탑과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사례를 언급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유명 대도시들은 초고층 건물을 통해 그 도시의 상징성을 뚜렷이 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829.84m의 높이를 자랑하는 건물로써 인위적인 랜드마크 조성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자원이 고갈될 시기를 대비한 산유국의 관광 자원화에서 초고층 건축물은 무엇보다도 확실한 랜드마크를 완성하는 방법
- 랜드마크 빌딩은 매우 좋은 도시의 상징 방법임에 틀림없으나 앞에서 예를 든 도시들은 거대도시이거나 세계에서 손에 꼽을 자본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라는 사실임. 자본과 랜드마크 빌딩은 매우 인접한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내포신도시는 인구 10만 규모의 행정 중심 신도시이기 때문에 주변은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농촌지역으로 판단
- 이러한 자본적 한계는 랜드마크 빌딩의 크기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며 특히 건축물은 공사를 위한 건축비뿐만 아니라 준공 후 유지에도 비용이 수반
- 내포신도시는 감당할 수 있는 랜드마크 빌딩을 가져야 한다. 초기 계획을 훨씬 초과하는 비용이 건설에 소요된 사례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 설계로 유명한 서울 동대문의 DDP는 수차례의 설계 변경에 의해 막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
- 호주 시드니의 대표 랜드마크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대표적인 공사비 증가의 사례로 처음 계획보다 무려 15배의 비용을 들여서 완공했다는 사실은 유명
- 그런데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호주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전 세계인에게 기억되고 있으며 덴마크의 건축가 요른 웃존(Jørn Utzon)의 곡선의 쉘구조 디자인은 막대한 초과 비용의 지출에도 불구하고 매우 매력적인 형태로 이를 상쇄하고도 남음. 시드니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이 바로 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가격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형태와 아이덴티티의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할 가치가 있음. 정말 멋지고 많은 이의 뇌리에 남는 디자인이라면 큰 비용을 뛰어넘는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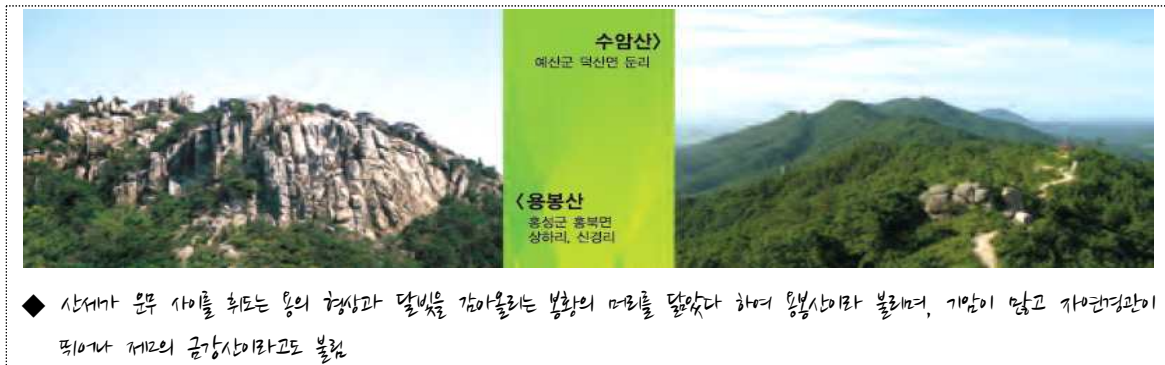
### 3) 정책제안

- 랜드마크 빌딩은 한 도시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지만 대규모 공사의 성격상 많은 어려움이 수반
- 내포신도시의 랜드마크 빌딩은 먼저 최적의 규모를 파악해야 하며 건설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 가능한 규모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
- 이에 대해서는 행정 당국과 랜드마크 빌딩 내 예상 유치 기업 등과의 수요조사 및 투자에 관한 다각적인 분석이 선행하여야 하며 내포 신도시 랜드마크 빌딩의 쌍둥이 빌딩 계획은 무모한 면이 있다고 판단
- 두 개의 빌딩은 더욱 많은 공사비를 필요로 하므로 내포신도시에는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생각이며 하나의 건물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필요
- 영국 런던의 밀레니엄아이, 시카고의 밀레니엄 파크 그리고 앞에 이야기 했던 시드니의 성공 사례를 보면 모두 시 당국의 꾸준한 관리 노력이 존재 했다는 사실을 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건축가에 의한 설계공모를 한다고 해서 바로 세계적인 랜드마크 빌딩을 얻는 것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 12. 산·바다·강이 어우러진 '자연경관도시'

### 1) 현황 및 여건, 해결과제

- [현황] 천혜의 자연환경(용봉산, 수암산, 가야산, 덕숭산 등)과 휴양시설(덕산온천, 치유의 숲길, 홍예공원 등)을 보유한 심신건강 증진 및 치유의 풍수 명당도시
  - 주변지역에 서해바다(천수만), 예당국민관광단지, 해미읍성, 수덕사, 천주교 성지(해미, 신리, 솔피) 등 휴양 및 관광지



- [여건] 생태자역적 내부여건 뿐만 아니라 내포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내포신도 내는 50% 이상의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녹지들은 네트워크 축을 구축하고 있어, 내포신도시의 최대 매력 요소가 되고 있음
  - 내포의 녹지는 크게 완충 녹지, 경관 녹지, 연결 녹지, 이들 3가지로 나뉘어 설치됩니다. 완충 녹지는 내포의 간선도로 주변에는 폭 10~30m로 조성되어 도로에서 발생하는 환경 저해요인을 차단하는 역할을 함. 경관 녹지는 내포신도시 경계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자연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고려된 자연 친화적 시설이며 연결 녹지는 내포 시내의 공원과 하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폭 40~50m의 녹지 축임
  - 내포에는 신경천과 목리천 외에도 수암천, 상아천, 신리천, 자경천 등 총 6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신도시 설계 계획에는 이 하천들이 녹지와 어우러지는 친수공간으로 정비됨. 하천의 상류는 자연형 친수하천으로 조성돼 도시의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임
  - 또 내포신도시에 있는 공공시설의 지상부를 모두 공원화하고, 공동주택 중 18% 이상은 지상부를 정원화 함



〈그림〉 내포신도시에 조성될 수변공간

출처 :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65175](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65175)

## 2)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언

- 내포신도시와 내포문화권과 인접한 바다, 산, 하천 등의 광역적 생태문화 네트워크 축을 보다 강화하여, 내포신도시의 목적에 맞게 충남도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인접도시와 연계 체계를 강화함



〈그림〉 내포문화권의 생태문화 자산들

출처 : <http://hj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8525>



- 내포신도시 내부는 50% 이상의 녹지가 파편적 녹지가 되지 않도록, 보행친화적 공간을 보다 많이 만들어, 각각의 녹지들이 연계해서 이용 될 수 있도록 체계화 하는 것이 보다 요구됨
  - 단순히 눈에 보이는 녹지보다는 생활 속에 함께하는 녹지, 관광객과 방문객의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녹지 공간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됨
- 이를 위해서는 도시설계 및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축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특히 경관협정 등을 통한 보행친화적·선적 접근 가능한 녹지공간의 확충이 요구됨



〈그림〉 보행 친화 공간을 만드는 다양한 사례들

출처 : 내포신도시 특화발전협의회, 2017, 내포신도시 특화발전 기본전략 발표 자료 재인용

## 제3장 결론 및 정책제언

- 내포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내포의 정체성·특화 등이 제안되었지만 신도시 거주민과 방문객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부족하고, 발굴·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이루어짐
- 내포신도시 자체가 자랑거리이고, 자랑거리는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참여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본 연구는 현재 내포신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자랑거리를 제안하고, 제안된 의견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압축하면서, 새롭게 발굴된 자랑거리는 추가하는 방식으로 발굴함
- 본 연구에서 발굴된 자랑거리는 현재 단계에서 발굴된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발굴과 도민의 생각을 담아 발전시켜 나가고,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꾸준히 발굴되어야 할 것임
- 특히, 내포신도시의 입지와 주변의 산과 하천, 내부의 수변과 녹지 등 자연·생태 환경 자체가 자랑거리이므로, 향후 자랑거리의 구체적 실천과 추가 발굴에서 이 점을 보다 활용·연계하는 것이 요구됨
  - 또한 내포문화권 관점에서 보면 온천과 바다, 산이 네트워크화 장점을 살려 보다 광역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는 내포신도시 개발 목적과도 부합됨
- 내포신도시 자랑거리 발굴과 실천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신도시 거주민의 참여와 도민의 관심이 요구되며, 이를 체계화 할 수 있는 조직의 구성, 예산 등의 지원도 요구됨

\* 원고집필 외부전문가 : 변나향, 김연준, 최이명, 윤세운, 김진형, 이영환

## 참고자료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17, 우리가 함께 만드는 공공도서관  
내포신도시 특화발전협의회, 2017, 내포신도시 특화발전 기본전략 회의자료(1·2·3차)  
임준홍 외, 2017, 내포신도시 특화컨셉 및 실천전략, 충남연구원  
조준배 외, 2008, 영주시 공공건축 통합 계획  
충남개발공사, 2014, 내포신도시 마을 및 시설 명칭부여 연구  
New Yorkers for Parks, 2016, How Can I Improve My Park  
Mayor of London, 2012, Green Infrastructure and Open environments: The All London Green Grid  
New Yorkers for Parks, 2018, Brownsville Open Space Index  
google 이미지, 위키피디아(프랑스) 라빌레트 공원  
都市照明環境と夜間景観体験分析にもとづく都市夜景に関する研究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65175](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65175)  
<http://hj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8525>

## **[붙임자료] 내포신도시 자랑거리 발굴 · 선정과정**

### **□ 추진계획 수립 및 자랑거리 발굴**

- 자랑거리 자체 발굴을 위한 조사 및 발굴
  - 기 간 : '18. 1. 28
  - 자체발굴 : 충남도청사 등 18개소 → 행정부지사 보고
- 자랑거리 선정 추진계획 수립 : '18. 3. 7.

### **□ 설문조사**

- 설문기간 : '18. 03. 21(수) ~ 3. 28(수) 7일간
  - 대 상 : 도청 전직원
  - 설문방법 : 온나라 - 행정포탈 - 설문조사 이용
  - 설문내용 : 내포신도시 10대 자랑거리 선호도 조사
- 설문 조사 결과 : 응답자 134명
  - 홍예공원(10%), 문화시설(8%), 체육시설(7%), 도청사(7%), 야간경관(7%), 랜드마크(6%), 한옥마을(6%), 문화예술의 거리(6%), 생활·레저형 도로망(6%), 내포혁신플랫폼(5%)

### **□ 전문가 자문**

- 자랑거리 발굴 T/F팀 실무회의
  - 일시 및 장소 : '18. 06. 04(월) / 충남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 도, 충남연구원
  - 회의내용 : 자랑거리 발굴방향 및 추가 발굴요소 선정 방향
- 자랑거리 발굴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18. 07. 10(화) / 문예회관 106호
  - 참석자 : 전문가, 충남연구원, 충남도
  - 회의내용 : 현장답사 후 자랑거리 발굴, 향후 실천 방안토론
- 1차 (랜드마크 조성) 자문회의
  - 일시 및 장소 : '18. 07. 31(화) / 도청 304호
  - 참석자 : 전문가, 충남도, 시행사
  - 자문내용 : 랜드마크 조성 추진방향, 자랑거리 발굴방안
- 2차 (자랑거리 발굴 및 선정) 자문회의
  - 일시 및 장소 : '18. 08. 30(목) / 내포신도시건설과 MP
  - 참석자 : 총괄기획가, 충남도, 시행사
  - 자문내용 : 자랑거리 선정 및 발굴요소
    - ※ 홍예공원, 열린도청사로, 한옥마을, 특색있는 건축물(특별한 화장실) 등

### **□ 자랑거리 발굴 선정 현안과제 부여 (충남연구원)**

- 선정결과 보고회 : '18. 09. 11(화) / 도청304호
  - 참석자 : 충남도, 예산·홍성군, 충남연구원, 시행사
  - 보고내용 : 현안과제 11개 자랑거리 발굴과 정책 제안
    - ※ 기존시설 활용, 프로그램 발굴 등 보완